

성경의 주요 예언

델러스 신학교 John Walvoord(1910년 5월 - 2002년 12월)

원 제목은 <Major Bible Prophecies> 이고 저자는 월브우드 박사, 총 460쪽, 아마존:

https://www.amazon.com/Major-Bible-Prophecies-Crucial-Affect-ebook/dp/B003MVZP1I/ref=sr_1_1?ie=UTF8&qid=1537765539&sr=8-1&keywords=major+bible+prophecies

내용

1. 인간 역사의 예언 차트 The Prophetic Chart of Human Destiny 9
2. 죄와 사망 Sin and Death 17
3. 구원과 영적 전쟁 Salvation and Spiritual Warfare 26
4. 노아 언약과 예언 Prophecy and the Covenant With Noah 31
5. 아브라함 언약과 예언 The Prophetic Covenant With Abraham 39
6.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 The Messianic Genealogy of Jesus Christ 46
7.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 예언 Prophecy of the Future of Israel As a Nation 59
8.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73
9. 미래의 다윗 왕국 The Future Davidic Kingdom 96
10. 구약의 메시아 왕국 The Messianic Kingdom in the Old Testament 110
11. 예언으로 본 세계 역사 World History in Prophetic Outline 125
12. 구약성경의 바빌론 예언 Babylon in Old Testament Prophecy 134
13. 구약성경의 메대 페르시아 예언 MedoPersia in Old Testament Prophecy 143
14. 구약성경의 그리스 예언 Greece in Old Testament Prophecy 149
15. 구약성경의 로마 예언 Rome in Old Testament Prophecy 160
16. 이스라엘 관련 490년 역사(70이레) The 490 Years of Israels Prophetic Destiny 165
17. 새 언약 The New Covenant 176
18.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 192
19. 하늘의 왕국의 신비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205
20.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219
21. 교회라는 새 프로그램 The New Program for the Church 229
22. 주의 재림의 표적들 Signs of the Lords Return 249
23. 교회의 휴거 The Rapture of the Church 265
24. 그리스도의 심판석 The Judgment Seat of Christ 305
25. 적그리스도의 등장 Rise of the Antichrist 312
26. 7년 언약 The Seven Year Covenant 317
27. 종교적 바빌론 음녀 Babylon Ecclesiastical 321
28. 세계 정복을 꿈꾸는 러시아 Russias Last Bid for World Conquest 328
29. 세계 최종 단일 종교 Final World Religions 338
30. 대환난 The Great Tribulation 346
31. 바빌론의 최종 멸망 The Final Destruction of Babylon 354
32. 그리스도의 재림 The Second Coming of Christ 360
33. 첫째 부활 The First Resurrection 376
34. 재림 시의 심판들 Judgments at the Second Coming 381
35. 이스라엘의 회복 Restoration of Israel 389
36. 크고 흰 왕좌 심판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407
37. 새 하늘과 새 땅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413

성경의 주요 예언 미

델러스 신학교 John Walvoord(1910년 5월 - 2002년 12월), 델러스 신학교는 1924년에 스페리 쉐퍼 박사 설립, 강해 설교. 세대주의 신학,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키는 신학 대학
쉐퍼 이후 1952년부터 1986까지 총장, 30여 권 책, 종말론 예언, 책 스원들(1994-2001년까지 총장)

〈성경의 주요 예언〉

이 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으며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예언 37가지를 다룬다.
이것은 단순히 앞날의 예언에 대한 책이 아니다.

사람의 운명부터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 제공
서문: 20세기는 변화의 시대, 달구지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비행기, 우주 왕복선까지

과학, 정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1.2차 세계대전 등
인간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원자 폭탄,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델러스 신학교는 1924년 설립 이후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외침

그 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사람 거의 없었음, 1948년 5월 이스라엘 드디어 독립 건국
1967년 6일 전쟁, 구 예루살렘 회복, 성전 지을 채비, 러시아, 이슬람 국가들

성경의 예언 성취가 눈앞에 있음

그리고 UN 이후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경제(WTO), 단일 세계 종교(WCC)

자유 민주주의/시장 경제 체제 대신 적그리스도의 사회주의 선택 가능성, 완벽한 독재
여하튼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성경의 주요 예언〉은 이런 시점에서 37가지 성경의 주요 예언 주제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급 코스

1. 인간 운명에 대한 예언 차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많은 질문을 한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 크면서 복잡한 질문

하나님, 사람, 죄, 천국, 지옥, 영생 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자기 앞에 놓인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타락, 우상 숭배

인생의 의미, 인간 존재의 목적, 가치관, 옳고 그른 것의 차이, 인간의 운명, 죽은 뒤 어떻게 되나?

원자 폭탄 개발 후 일본에 실제 사용, 그 뒤로 더욱더 인간의 운명에 관심, 미래에 대해서

물질만능주의, 공산주의 진화론 등으로 이런 것을 묻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사람, 죄, 영원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록: 주전 1500년- 주후 100년까지, 1600년, 40여 명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 인류 역사는 6000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 시아에 모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직접 하나님을 보고 대화하였다.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메시아, 믿음의 조상, 창세기는 50장, 1-11장까지 2000년 역사

12-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이야기, 즉 유대인의 형성 과정 설명

인간의 운명을 알려면 반드시 창세기, 특히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유튜브 〈창세기 강해〉, 지금 이 시간, 미국 등 모든 강대국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유대인, 팔레스타인

2. 인간 운명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 차트

A. 아담과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에덴동산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대화함

하나님의 창조, 그분의 주권, 사람의 책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짐, 거룩함을 잃음, 죄인으로 태어남,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창3:15), 여자의 씨,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 뒤 짐승의 가죽, 죄를 가리기 위해 피를 통한 대신 속죄 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거룩함과 공의의 하나님
불행히도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몇 세대 이후에 사라지고 맴.

B.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취해 거인 생산(창6),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심판을
면할 사람이 없음. 대홍수, 모든 인간 멸절,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말씀: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C.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심, 땅과 씨를 약속하심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계획

D.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모세오경, 아담부터 모세까지 2500년간의 역사적 기록
구약은 예표(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스라엘의 미래, 실제 Old testament

E.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다윗을 통한 메시아 왕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메시아, 재림 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

F.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BC 600-530년경, 이방인 왕국의 변천(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둘 왕국(천년왕국)
유대인을 향한 70이레(490년), 유대인들의 부활
하나님의 주권 및 계획(세상 역사 주관), 숨겨진 책, 계시록과 매칭

G. 이 외에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예언

3. 인간 운명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언 차트

A.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히1:1, 요1:17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건, 3년 반 동안 유대인 사역, 하늘의 왕국 선포, 이스라엘의 거부, 그들은
재림 때에 가서 메시아를 받아들임, 십자가 사건 후에 교회 등장 예고(마16:18)

마24-25는 휴거 이후 대환난기 설명, 이방인 가운데 천년왕국(또 지옥에)에 들어가는 자들

B. 사도들의 행적

초대교회, 10년 유대인 교회, 이후 이방인 중심으로 바뀜, 결국 대다수가 이방인으로 된 교회 형성
교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

C. 신약 성경의 신학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서신서들,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모든 신학 제공(성경, 하나님,
사람, 칭의, 성화(보상), 천사, 재림)

부활, 휴거, 재림과 관련해서는 고전15, 살전4 등

D.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의 절정

예수님 재림 전의 7년 환난기(유대인 및 이방인 심판), 재림, 천년왕국(계20), 새 하늘과 새 땅

4. 결론

성경은 인류의 운명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책

하나님: 본성, 의도와 계획, 역사 인도 및 주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계획, 교회에 대한 특별
계획, 이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 심판, 구원 및 보상,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앞으로 3-40번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 이해는 불가능, 그러나 많은 이해 가능

성경을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읽으면 된다(딤후2:15).

성경의 주요 예언 2: 첫 번째 예언: 죄와 사망

지난주 <성경의 주요 예언> 책 소개, 그 안에 있는 37개 예언 간략히 요약, 1장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 차트, 성경은 인류의 운명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담은 책 하나님의 본성, 의도와 계획, 역사 인도 및 주관,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 계획, 교회에 대한 특별 계획, 이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 심판, 구원 및 보상,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등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예언: 죄와 사망

하나님의 명령, 창2:16-17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세상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종교에 상관없이 죄와 사망을 접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그리고 예언 등을 이해하려면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

다른 종교에는 신들이 있는데 대개는 죄 많은 인간들이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 바빌론 제국의 신들, 부처, 공자, 무함마드, 마리아 등

이교도들은 대개 그 신들을 두려워한다. 이유: 사악하다. 가나안의 신들

공의, 거룩함 등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한 방도를 구하며 인신 제사 등도 행한다.

성경의 하나님: 공의, 거룩함, 은혜, 사랑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방도를 주신다.

죄로 인해 사망이 오지만 부활이 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의 미래는 매우 영광스럽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 배울 때 이교도들의 종교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1. 초창기 세상(창1:1-2:25)

A. 초창기의 죄 없는 세상: 아담과 이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에 창조되었다.

B. 그들은 죄 본성이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판박이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 아름다운 추구, 자기 존재 의식 등,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유혹이 내외부에 없었다. '무죄 시대'

C. 악의 근원 사탄, 그 세사에서 유일한 문제는 사탄의 존재, 그는 뱀의 형태로 이브에게 나타났다(창 3:1).

창세기 자체는 사탄의 기원을 밝히지 않는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그는 기름부음 받은 그룹, 그룹은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 사탄의 죄: 창조물이 하나님처럼 혹은 그 이상이 되려는 것, 성경은 이를 교만이라고 한다(Pride).

아담과 이브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뱀의 공격을 받아 결국 타락하고 죄에 빠졌다. 그 결과 죄와 사망, 그리고 악(evil)이라는 신학적 문제가 이 땅에 발생함.

원래 에덴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창2:9),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없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스스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혹은 유지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심(창2:17)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에 순종하였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라는 암시

2. 사탄의 유혹(시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질문 변개(가감과 추측)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가? 창세기 3장,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품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의 문제도 마찬가지

A. 첫째 질문(3:1),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질문을 한다. 의심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복은 무시하고 한 가지 제약만을 강조한다(창2:16-17). 그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언급 안 함(17).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말해야 한다. 목사의 책무 중 하나

B.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지 않고 믿는 것

3.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A.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단 하나의 제약을 두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뱀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약은 부각하고 특권들은 축소하였다.

B.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였다(3:3), 만지지도 말라. 그 결과 하나님이 무언가를 크게 제한하는 분으로 생각하게 됨

C. 심판의 확실성을 의심함(3:3), 네가 죽으리라. '반드시'를 삭제함.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4.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면 끝에는 반드시 반대와 불신이 생긴다.

A.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 제기, 그런데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 부인, "네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창3:4),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 형벌이 없다면 누구나 죄를 지을 것이다,

B.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 부정,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성품 부정,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다. 인간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 하지 않는다." (창3:5), 그들이 하나님처럼 혹은 신들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탄의 죄: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는 사람들이 자기(신)처럼 되기를 원하였다. gods. 타락한 천사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이 알면 문제, 악을 피할 능력이 없이 알면 문제

C. 마귀는 심판의 확실성에 의문 제기,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인류의 가장 큰 문제: 1. 하나님의 말씀 부인, 2. 하나님의 성품 의심, 2. 하나님의 심판 부인

4. 마귀 시험의 패턴(요일2:16)

A. 육신의 정욕(요일2:16), 선악과가 먹기에 좋음(3:6)

몸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의 필요(의식주 등), 그런데 조절이 안 되면 문제

사람의 정욕(lust)들을 말씀으로 제어해야 함, 다윗은 성욕에 넘어가서 간음, 살인(삼하11), 타락 이후에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게 되었다. 아담의 형상,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육신이라 함

B.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3:6)

아름다움 추구, 원래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역시 조절되지 않으면 물질만능주의, 재능만능주의, 육체만능주의, 여기에 넘어간 사람 솔로몬,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왕상11:3)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귀한 것 많이 소유 그러나 아름다움 추구하다가 타락함 대표적인 인물, 사탄 마귀 루시퍼, 아름다움의 극치, 교만, 타락

C. 인생의 자랑, 창3:6,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자랑, 이 말은 교만과 같다. pride,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 사울,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을 망함

5. 그 결과(창3:7-21)

아담과 이브는 제어할 능력이 없이 선과 악을 알게 됨

그 결과 육신의 사망(창5:5), 그리고 영적으로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죄인이 되고 말

선악을 알게 되자마자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발견(3:7), 무화과나무로 앞부분을 가림, 이것이 종교 행위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감(3:8), 죄는 교제를 붕괴시킨다.

"네가 어디 있느냐?"(3:9), 그의 책임을 물으심

왜 숨었느냐, 벌거벗어서,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여자에게 책임 회피(3:12),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산물, 여자의 회피, 뱀(3:13)

6. 심판, 사망

사탄에 대한 심판(창3:15), 인류의 마귀의 싸움 예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순다(치명적).

저주: 여자에 대한 것(창3:16),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 등(16)

남자에 대한 저주(3:17-19)

피로 이루는 대신 속죄(3:21), 죄 없는 피가 죄를 덮어야 한다. 아담에게 각인함

7. 요약

A. 예언을 상세하게 보아야 한다.

왜 예언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인류 경영, 죄와 사망 때문이다.

인류 역사 6000년, 그리스도의 오심 모두 이 문제,

B. 성경 말씀(예언)을 문자 그대로, 육신 사망, 영적 사망, 마귀의 운명 등
영해, 비유 해석 No!

C. 문제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 파악 부족, 오남용, 부분 인용

D. 창세기 3장은 죄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메시아, 인류 구속 예언 필요

성경의 주요 예언 ㉓: 구원과 영적 전쟁 예언

지난주 성경의 첫째 예언, 죄와 사망의 예언, 아담과 이브의 타락 과정, 뱀의 전술/전략

말씀에 의심을 가하는 것,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요일2:16-18)

타락 이후 사람은 죄성(Sin nature)을 갖게 됨. 죄인이 됨, 인류 구속의 필요

셋째 시간 구원과 영적 전쟁 예언

구원과 영적 전쟁 예언

창3:15, 특별히 뱀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저주

구원받은 신자의 삶, 구원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 생긴 죄성 때문에 항상 문제를 안고 산다.

1. 에덴동산이 죄 많은 세상으로 대체됨

A. 낙원을 잃음, 창세기 초반부에 낙원 형성(2:8-17), 그러나 3장에서는 낙원이 죄 많은 세상으로 바뀜, 그 결과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고통과 슬픔의 세상, 하나님께서 사탄과 사람들에게 심판의 저주를 선고하심, 적어도 천년왕국 혹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지속됨(계21:1, 3-4)

B. 사탄의 저주: 원래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죄가 땅에 변질,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
계12장에 보면 마지막 대환난기에 사탄이 마귀들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옴(7-9, 12)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현현, 재림(11-17), 마귀의 협력자들 처벌(17-19)

그리고 사탄을 돕던 짐승과 거짓 대언자 유향 불 호수(20)

20장에 보면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힘, 1000년이 지나서 잠시 풀려남, 수많은 사람들 유혹(1-8)

그러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적자들 삼키고(9) 마귀가 붙잡혀서 불과 유향 호수에 영원무궁토록 들어감(10)

이로써 이 땅에서의 역사 마감, 다른 차원의 세상

C. 창조 세상에 대한 저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상(롬8:18-23),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의 결과이다. 지진, 태풍, 전쟁, 기근, 역병 등, 무질서를 증대시키는 엔트로피, 처음 세상은 에너지와 엔트로피 모두 보존됨, 지금은 에너지만, 시간이 가면서 무용 에너지만 중대, 나중 세상에서는 다시 둘 다 보존됨, 한국에서 미국, 문을 통과함

사탄의 대적으로 인한 결과는 로마서 1-2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우상숭배, 각종 악한 죄(롬 1:28-32)

D. 사탄과 여자 사이의 적개심(3:15), 마귀의 후손 혹은 군대들과 여자의 후손들 사이의 영적 전쟁(엡6:12-18),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요16:33)

E. 인간의 고통,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천사들 대적, 그래서 하나님의 용인하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한다(딤후3:12-13), 대표적인 사례 읍

인간의 알 수 없는 고통 뒤에는 마귀의 모함이 있을 수 있다.

2.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구원자 혹은 구속자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창3:15; 롬16:20).

여자의 씨: 처녀 탄생, 성령님에 의해 수태가 됨, 남자의 씨 없이

여자의 피를 받지 않음, 죄성을 받지 않음, 100% 하나님, 100% 사람

메시아 계보: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 처형,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음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 세상의 많은 신화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3. 여자에 대한 저주(창3:16), 수태와 해산의 고통, 복종(딤후2:8-15, 고후11:2-3 등),

결혼의 원리(엡5:21-24), 고전11장, 남자와 여자(3-7), 머리를 밀면 안 된다. 여승, 여사제 등 10절의 의미, 여자의 긴 머리(15)

4. 남자에 대한 저주(창3:17-19),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3:19), 롬5:12

5. 피의 희생에 의한 대신 속죄(21)

아담과 이브에게 각인이 됨,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헌물을 가져옴(4:3-4)

그 결과 그의 헌물은 무시를 당하고 결국 그는 아벨을 죽이고 뺨(7-8)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히11:4, 6).

아벨은 부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창15:6의 아브라함의 믿음

6. 메시아가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곧바로 마귀가 나타나서 동일한 시험(마4)

육신의 정욕(뽕)과 안목의 정욕(왕국), 인생의 자랑(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모두 말씀으로 이기심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고전15:45)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15:47-49)

7. 성경을 메시아 대적 역사로 보자

아벨

노아 시대 모든 사람 유전자 변형

바벨탑에서 니므롯 통치

이집트에서 남자아이들 죽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

솔로몬을 타락시킴

유다에 아달랴 시대, 모든 씨를 죽였으나 요아스만 살아남음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타락, 결국 메시아 내는 것 방해

예수님이 오심, 헤롯이 아이들을 죽임

마귀의 등장, 예수님을 시도 때도 없이 죽이려 함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

그러나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히2:14-15).

하나님의 열심히 마귀의 모든 계락을 물리치신다.

인간이 보기에는 오랜 역사, 어떨 때는 패배의 역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정에 따라 이루신다.

우리 앞에 휴거와 재림이 놓여 있다.

마귀의 패망이 놓여 있다.

8. 영적 전쟁의 최후 결과

아담은 육체를 입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

예수님 같은 몸 소유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

하나님의 본성 참여, 생명나무 실과 불필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지님

심지어 천사도 심판, 마귀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완전히 뒤집어놓으심

이것이 영적 전쟁의 최후 결과이다.

성경의 주요 예언 4: 노아와의 언약과 예언

지난주 성경의 둘째 예언, 사람의 타락, 창조 세상의 타락, 구속과 구원의 필요, 구원과 영적 전쟁의 예언, 피의 희생의 대신 속죄, 메시아 계보, 마귀의 메시아 방해
가인과 아벨 사건(창4), 창5: 아담의 세대, 모두가 죽음
아담의 창조 이후 약 1400-150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드디어 창6장, 노아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복 주심과 저주

창1-11장은 초기 인류 역사 2,000년의 기록

12-50장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형성 과정, 인류 가운데서 메시아를 낳을 민족으로 유대인 선택
창세기의 초기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과 인간의 타락 저주, 다시 시작함이 반복해서 나온다.

1. 죄에서 구속하시는 복

우주 공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의 타락

그 뒤 특별 창조: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복 주심,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그들을 다시 구속하심
천사들은 다시 구속하는 일이 없다. 아마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2. 죄 그리고 저주 그리고 축복

에덴동산, 무죄 시대에서 죄, 타락, 아담과 이브와 사탄에 대한 정죄

여기서 다시 한 번 짐승의 희생, 가죽옷 사건, 무죄한 피로 수치를 덮어 주심

그 뒤에 계속되는 인간의 실패, 그 결과 노아의 홍수, 이를 통한 또 다른 단계의 시작

3. 홍수(창6-8)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됨, 저주에서 축복으로

4. 또 다른 실패(창9:20-23)

그러고 나서 바벨탑 사건(창11:1-9), 그 뒤 민족들의 형성

5. 아브라함 선택(12장 이후)

또 다시 복을 주심, 결국 창1-11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는 이유 혹은 배경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창6:9-7:5)

창6장은 지극히 중요하다. 노아 홍수의 원인,

사람들의 부패,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인류 멸절 계획(하나님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 거인 형성(6:1-4), 그 결과 5-6

특별히 우리 주님은 마지막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심

그러므로 그때의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이 호의를 입음(6:8-9): 아담, 셋의 후손으로는 그의 가족 8명만 호의를 입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창조물을 보조하심(6:13-22)

하나님께서서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시고 그의 가족을 들여보내신 뒤 문을 닫으심(7:16)

홍수의 파멸(창7:6-24)

홍수의 시작(창7:6-24)

그의 가족들은 홍수가 오기 7일 전인 2월 10일에 들어감(7:4, 10)

노아의 삶에서 600번째 해 2월 17일에 드디어 지하수가 넘치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옵니다(7:11-12)

홍수는 3월 27일에 멈춤(7:12), 40일간 내림, 물이 110일간 넘침

그러므로 총 150일 동안 물이 머물렀다(7:24)

그리고 7월 17일에 아라랏의 산들에 안착함(8:4)

10월 1일 즉 안착 후 74일 뒤에 산들의 꼭대기가 보임, 유대인들의 달력 한 달 30일 기준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남(11월 11일)

11월 11일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냄, 비둘기가 돌아옴

이레를 머문 뒤 11월 18일에 다시 보냄,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옴(창8:10-11)

일주일 뒤 11월 25일에 다시 보냄, 안 돌아옴(8:12)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함: 601년 1월 1일(창8:13),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름(14-19)
 방주에 머문 기간: 2월 10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7일까지 377일(7일간 머문 기간 포함), 유대 달력으로는
 1년 360일 더하기 17일
 이 기간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됨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 홍수, 에베레스트 산의 해초, 조개 등
 솔트레이크 시티, 카스피 해 등 소금 호수

노아 언약(8:20-9:17)

1. 노아가 희생예물을 드림(8:20)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 헌물(8:20), 피의 희생 다시 확인
 하나님의 새 언약(8:21-9:17), 특히 8:21-22,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는다.
 지금 세상은 최후에 불에 의해 멸망된다(벧후3:10-13).
2. 노아 언약의 몇 가지 요소들
 - A.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9:1).
 - B. 창조 세상을 사람 밑에 둬(2-3)
 - C. 육식 허용(3-6)
 - a. 단 피는 안 된다(4)
 - b. 사형제도 확립(5-6), 천년왕국에서는 다시 초식(사11장, 사65:25)
 - D. 다시는 홍수가 없다(11)
3. 언약의 표적(9:12-16) 구름 가운데 무지개, 그 전에는 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2:5-6), 인간과 짐승 모두에게 표적으로 주심(9:17)
4. 이 언약을 통해 정죄와 저주 이후 다시 복을 주시는 사이클이 반복됨

노아의 죄

1. 술을 먹고 취함(9:20-21)
 홍수로 인해 새 사이클이 시작되었으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음
 노아는 의인이었으나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함, 벌거벗음(21)
2. 함의 죄(22)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가십거리로 삼음, 셈과 야벳은 그리하지 않음
3. 노아의 예언(25),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함
 여기의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됨: 이 족속의 죄 중 가장 사악한 것은
 성적인 죄
 결국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땅
 이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화와 상관이 없다.
 결국 가나안 족속은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속14:21).
 야벳은 창대한 자(27)
 셈은 가나안을 지배하는 자(9:26-27), 영적인 축복
 셈과 함과 야벳, 셈이 아니라 야벳이 장자이다(10:21). 네 살 차이
 전주대학교 김경래 교수, <창세기 1-11장의 난해 구절 성경의 미스터리>

바벨 탑(11장)

1. 바벨 탑 건축(11:1-4)
 아마도 고대 바빌론 사람들의 지구랏,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신전
 니므롯이 대장(10:8-10), 함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10:6-8)
 이를 통해 바빌론 미스터리 종교, 세미라미스와 아들 담무스
2. 언어의 혼잡(11:6-7), 민족들 형성(10장), 10장은 민족들 형성 먼저 보여 주고 그 뒤 11장이

이유 설명

3. 언어의 혼잡으로 인한 세상의 혼잡

사람들은 모이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그들을 분리하심(행17:26-27)

마지막 때에는 다시 모여들기 시작함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세계 4대 문명 발생, 그 전에는 다른 데 사람 없음

단군 기원(기원 전 2333년), 올해 4351년

성경은 바벨(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끝남

마귀의 문화는 바빌론 문화, 혼잡하게 하는 것

4. 창1-11장의 축복과 저주 사이클이 끝남, 드디어 아브라함 등장

1-11장을 통해(2000년 기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메시아 이야기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 구속은 선별적이다. 다 구원받지 않는다. 다 복받지 않는다. 다 저주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 회개하는 자들의 구원과 구속,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정죄(롬2)

5. 성취된 예언의 원리가 보여주는 것

A.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홍수는 홍수

B. 심판도 문자 그대로

C. 홍수 이후의 일들도 문자 그대로

D. 예언은 구체적이다.

E.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예언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6. 성경의 전체 구도

에덴동산, 첫 아담 타락, 육식 허용, 인간 수명 1000살

메시아 마지막 아담, 하늘의 왕국, 초림과 재림, 드디어 왕국, 에덴동산의 회복, 초식, 인간수명 1000살(사65장)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멸절,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의 주요 예언 5: 아브라함과 언약과 예언

지난주, 노아와의 언약과 예언, 지금부터 4500년 전 주전 2500년경,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상 침략, 사람들의 사악함(창6:5), 모든 육체가 부패됨(창6:12)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함, 새 세상 창조, 사형제도, 인간 정부, 다시 바벨탑에서 니므롯을 중심으로 반역함, 언어의 혼잡,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감, 드디어 민족들 중 한 민족을 택함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창12:1-3),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새로운 시작

1. 아브라함 선택: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선민 등장, 인류 구속의 행로가 조금 더 구체화 됨
아담, 아벨, 아벨 대신 셋(창4:25), 셋의 후손 노아, 노아의 아들 셈, 바벨탑 이후 하나님은 셈족 중에서 데라를 택하심(11:26-32), 그에게서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2. 창세기 50장: 이 중 12-50장까지 총 39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에덴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들어감, 들어가는 이유: 민족을 형성하기 위하여
아담, 노아,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나단(눅3:31-32), 마리아(마1:16), 예수님
3. 인류 구속은 하나님의 의도: 창세 전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 이것을 펼쳐나가면서 유대인 선택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인류 구속 계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중 하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요4:22)
구약 시대: 대언자들, 성경 기록자들, 성경 보관자들
신약 시대: 12사도, 사도 바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 중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

1.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심(12:1):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12:1), 아마도 편한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아마도 이들은 우상 숭배(수24:2-3), 데라와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순종의 여정은 완전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가족과 친족(아버지 집)도 두고 떠나라는 명령을 받음, 쉬운 일이 아님
아버지 데라가 있음, 형 하란의 아들 롯이 함께 감(12:31)
결국 먼저 하란으로 가서(창11:31) 데라가 죽은 뒤 그는 가나안으로 올 수 있었다(히11:8-10).
하란은 터키의 산리우르파 주의 카르하에로 알려져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 중심이었던 매우 오래된 도시 하란은 중요한 고고학적인 장소이다. 바빌론 제국 지도(12쪽)
그리고 그는 결국 롯과도 헤어지게 되었다(창13:5-11).
많은 경우 이것이 믿음 생활이다. 나와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요즘 좌편향 되다 보니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니 어찌하면 좋느냐는 질문,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당해야 하는 손실이라면 감당해야 한다. 주님이 합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2. 큰 민족에 대한 약속(12:2): 땅은 아브라함 언약의 한 요소, 또 다른 요소는 위대한 민족의 형성(창 12:2)
그는 여러 민족들의 조상(창17:4),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유대인들은 수뿐만 아니라 중요성에서도 큰 역할
이 큰 민족에 대한 견해들: 이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천년왕국 이 민족은 믿음의 민족을 말한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무천년주의자 후자가 되면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 천주교 신학, 구약 시대부터 교회 시대다 등
성경의 예언이 풀리지 않음, 창세기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록
심지어 4복음서의 끝 부분까지 구약 시대(롬15:8-9; 갈4:4).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특히 예언)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려 함

시초: 히포의 어거스틴(주후 354-430),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다스리는 지상 왕국이 곧 1000년 왕국, 천주교 신학 체제, 많은 성도들을 죽임, 여기서 나오는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도 무천년설을 가지고 나옴. 칼빈, 루터 등 모두 국교 실현, 교회가 왕국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영적 자손들이 있다는 것(갈3:6-9)은 하나님의 문자적인 예언 즉 큰 민족에 대한 예언을 취소하지 못함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는 문자적인 계보

예수님도 문자적으로 예언된 대로 그 자리에서 태어나심

문자적인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영해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

계시록 7장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 144,000명

3. 개인적은 축복. 아브라함 언약에 든 개인적인 축복, 창12:2의 3중 축복

4.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A.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축복 성취: 부자, 강력한 자, 이삭을 가져올 기적의 통로, 그래서 그의 세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창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남)

B.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구속 사역에서 심히 중대한 사람 (아브람 54, 아브라함 231, 총 285회), 여하튼 이름이 크게 됨, 아브라함 링컨까지

C. 복이 될 것이다(12:2), 그의 세대, 가족, 민족,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됨, 복의 근원이 됨 그의 순종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음, 결국 그로 인해 메시아, 천년왕국의 때, 온 세상이 복을 받음

5.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들에 대한 언약 성취: 아브라함 언약에는 민족들에 대한 저주와 축복(12:3) 하나님을 축복하면 아브라함 추복, 하나님을 저주하면 아브라함 저주, 이집트:

아시리아: 북왕국 10개 지파 포로(BC 721), 결국 멸망함

바빌론: 유다(베냐민) 포로, 결국 멸망함, 메대 페르시아: 유화 정책

그리스: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로마: 서서히 멸망함, 유튜브 <다니엘서 강해 6번>

그 뒤 스페인, 러시아, 독일 등 유대인 핍박하던 나라들 멸망함

특별히 천주교회의 유대인 핍박이 극심함, 대개 못사는 국가들이 됨

이슬람 국가들, 가장 못살고 인권 탄압하는 국가들

1500년대 이후 앵글로 색슨 족

6. 아브라함 관련 약속들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그의 후손들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다. 잘 구분해야 한다.

결국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갈3:6-9)

갈3:6-9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복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다.

아브라함 언약 성취의 중요점

1.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후손들 안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됨

2. 땅: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1948년 5월, 1967년 6월 6일 전쟁,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 아브라함이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 하나님의 말씀(창17:8)

3. 왕들(창17:6): 그를 통해 여러 왕들이 실제적으로 나옴

4. 이스라엘과 성도들에게 은혜가 주어짐: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상속 언약이 세워짐,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다(창15:6; 롬4:1-5).

또한 1000년 왕국 때에는 그 새 언약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됨(렘31:31-34; 히8:7-13)

5. 신약과 구약의 믿음(faith)은 다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10세기 그리스도인, 21세기 그리스도인
무엇을 믿는가?

히11:1-2,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창15:6).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대상이 중요하다,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관해 기록된
계시를 믿는 것이다.

6. 왜 아브라함 언약과 예언을 언급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 성경은 확실하다. 성경에
대한 확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것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이유: 유대인을 보라

지금도 온 세상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축복과 저주와 구원과 정죄가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한국도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한다. 북한처럼 하면 안 된다.

특히 마지막 대에 세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이때가 문자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때

성경의 주요 예언 16: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계보

지난주,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장 중요한 것 땅과 민족, 민족을 통해 메시아(요4:22), 구원은 유대인 창12장부터 이 위대한 민족의 형성역사

이삭의 출생

1. 아브라함의 문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하다가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는 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12:4), 아이가 없다. 그의 믿음 시험, 그 뒤 10년이 다시 지남
창세기 15장: 1-3절, 엘리에셀 청지기를 상속자, 주님의 말씀(15:4-5)
아브라함의 믿음(15:6), 땅에 대한 약속(18-21)
2. 85(16:3)세에 사라의 제안과 이스마엘의 거절(창16:1-3), 하갈, 이스마엘 출생 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창16:16)
그런데 그는 상속자가 아니다.
3. 99세에 아들을 준다는 약속 재확인(17:1-2), 아들 약속(7-8)
이름을 바꾸어 주심(5, 15): 아브람에서 아브라함(많은 민족들의 조상), 사래에서 사라(민족들의 어머니)
그리고는 할례의 표적을 약속을 주심: 사내아이는 여드레 짜 되는 날 포피에 할례, 유대인들의 표적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이제부터 유대인들의 아버지, 이전까지는 이방인(롬4:3, 9-10)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들 약속(18:10), 사라의 웃음(12-14)
아브라함도 이미 웃음(17:17), 이스마엘이나 잘되기를 바란다고 함
4. 이삭의 출생(21:1-4),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음
하란을 떠난 지 25년 지나서, 긴 세월을 인내로 참아냄
창12-21장까지, 10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예언하시고 문자 그대로 이루셨다. 공통적인 패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성취하심(믿음 하나, 히11:8-14)
5. 인간의 역사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장, 드디어 인간의 뜻과 맞물려 이스마엘 족속, 유대인들의 최대 대적 이슬람 형성,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허락함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삭을 위해 아내를 취하는 과정(24장),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24:3).
결국 아브라함의 고향인 밧단아람(창28:2)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형제 라홀의 아들인 브두엘의 딸 리브가를 택함
이삭은 40세에 결혼함,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25:7),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줌
죽기 전에 그두라를 아내로 맞음, 여기서 미디안 족속이 나옴(25:1-2)
아이들이 생기지 않음, 이삭이 60세에 주님께 간구하여 쌍둥이를 받음: 에서와 야곱(25:26)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22-23), 말1:2-3, 롬9:6-13
여기의 선택은 민족에 대한 선택이다. 개인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둘째 아들이라는 점
에서가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25:29-34), 장자권을 업신여김
그 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축복을 받게 함(27장)
그 결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됨, 메시아 라인으로 선택됨
여기서도 에서의 후예들, 이슬람
주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 언약 확인(창26:1-5)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 확인(창28:1-4), 주님의 약속(28:13-15)
29-30장은 야곱이 아이들을 낳는 과정: 네 아내(레아, 라헬, 실바, 빌하)를 통해 열두 아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을 섬김(7+7+6), 품삯을 10번이나 바꿈(31:38-41)

야반도주(31장), 32장 압복강에서 주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뀜(32:28)

결국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음(33:20)

원래 베엘로 가야 했으나 가지 않음, 디나 강간 사건(34), 결국 베엘로 감(35:1, 7)

주께서 야곱과의 언약 확증(35:9-15)

유다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셉과 유다

12 아들들 간의 갈등, 특히 라헬의 아들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제들의 시기와 갈등

요셉은 11번째 아들, 이집트의 총독이 되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살림

유다는 넷째 아들, 특별히 한 것이 없음, 다만 베냐민을 붙잡아두겠다고 할 때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자처함(44장)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줌(49장)

가장 큰 축복은 역시 요셉과 유다,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차지함, 레위는 상속 유업이 없음,

먼저 유다(8-12),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10지파) 남왕국 유다(2지파)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함(35:22, 49:4), 요셉을 보호하지 못함

장자권이 야곱의 가족을 살린 요셉에게 넘어감(대상5:1-2), 두 몫,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총 13지파 남왕국 유다의 유다가 바로 이 유다를 말한다. 유대인들 역시 유다에서 나옴, 유대 땅 역시

이후로 12지파 중에 유다와 요셉 지파가 항상 다름

여호수아와 갈렘, 에브라임과 유다

이러한 갈등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종결됨(겔37:15-27, 슥11장)

가장 큰 예언(10): 실로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실로가 올 때까지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 최종 예언 성취는 메시아 그리스도

홀은 왕의 상징(민24:17)

메시아 시대의 사회상(49:11-12), 천년왕국의 모습

다윗과 관련된 예언

삼하7:5-17, 다윗 언약, 후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11-12, 16절, 눅1:31-33

그래서 마1:1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계보(마1, 눅3)

요셉은 다윗의 후손(왕가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취함, 공식적인 타이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와 그의 조상인 나단(다윗의 아들, 눅3:31)을 통해 피를 물려받음

눅3의 계보는 아담에게까지 올라감, 여자의 씨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1. 왜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을까?

큰 아들 르우벤, 시므온과 레위 다 흠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흠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할 필요도 없다,

유다는 창녀와 자려고 하다가 자기 며느리를 범함(38장)

야곱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은 레아일 것이다.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시킴, 그 이후로 라헬과의 관계, 가족 관계가 다 깨어짐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거기에 라헬이 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스트레스(29:31)

르우벤(31), 시므온(33), 레위(34) 그리고 유다(35)

창29:35,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자발적인 희생의 찬양

유다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의가 개입되지 않는다.

의가 핵심이라면 요셉이 선택되었을 것이다.

성경의 주요 예언 7: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

지난주, 아브라함 언약 중 위대한 민족, 유대인들의 형성 과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씨 메시아

오늘의 주제: 이스라엘의 미래, 다른 말로 1948년 5월 저 중동의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21세기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성경 예언의 핵심과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이다.

현시대 성경 해석의 가장 큰 문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인식 부족, 아전인수식 해석, 혼동 유발
이스라엘 대체신학: 교회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신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교회에 대한 예언이 구분될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지난 6번 창세기의 예언: 문자적 예언, 문자적 성취 패턴

아담과 이브, 노아와 대홍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 성취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언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미래

천년왕국에 대한 관점: 계20:1-9, 천년의 기간, 천년 이후 새 하늘과 새 땅

무천년주의: 천년왕국 부정, 이스라엘의 미래 부정, 천주교와 거기서 나온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후천년주의: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 그 이후 1000년 왕국, 인본주의자들

전천년주의: 재림 이후 예수님이 1000년 왕국 건설, 천년왕국 인정, 이스라엘의 미래 인정,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지배, 뛰어난 민족, 대다수 침례교회와 성경 신자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성경 예언 해석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계시록이 풀리지 않는다.

계7장의 12지파, 144,000명, 누구인가?

11장의 두 증인, 예루살렘 성전

12장의 해를 입고 있는 여인, 아들을 낳음, 여자는 교회다.

스가라서 14장 여호와 하나님의 재림, 올리브 산, 이방 민족들 다스림, 이스라엘 으뜸민족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 성취

1.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
2. 이스라엘 민족 혹은 국가의 형성: 70명 이집트, 탈출 시 200만 명, 그 이후 인구 증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 이스라엘 국가에만 현재 약 850만 명
3. 그 결과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영토, 주권, 국민), 이스라엘은 그들만의 독특한 혈통, 역사, 종교, 문화, 완전한 한 국가
4. 즉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됨

이스라엘의 미래는 확실한가?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주제는 성경의 주요 구절들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핵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

요점: 무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의 대립

1.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됨, 그러므로 나머지도 그리되리라고 자연스레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재림 이후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는 것으로 취급함

이유: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 언약은 미래에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순종, 그러나 불순종도 있다: 이집트로 내려감, 엘리에셀 상속자, 하갈과 이스마엘 이런 불순종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 언약은 그의 순종 불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영원토록 주어졌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집트 탈출 이후에 여러 차례 반역, 결국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

그리스도 배척: 전 세계로 흩어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은 미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예레미야를 보라.

예레미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70년 지나서 복귀(렘29:10).

이스라엘이 반역 중에 있었지만 문자 그대로 성취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반역 중에 그들을 향한 새 언약을 받음(렘31:31-34).

결론: 이스라엘의 배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그들에 대한 예언은 재림 때에 남을 경건한 자들에 의해 성취된다(마23:37-39, 눅12장 전체; 롬 11:25-26).

하나님이 이들을 구출하셔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예언(눅12:10, 13-14)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반역: 니느웨를 보라. 심판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 심판 연장, 150년 더 지속 엘리라의 불순종, 그 결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직 없음, 이것과 언약은 다르다.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나 다른 이바인 국가의 순종과 불순종의 사례

그러나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 언약에 따른 백성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창15장 설명), 피 언약, 경계들이 명시됨, 아브라함이 불순종할 때에 주어진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 요약: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조건적이다(순종). 혹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비슷하다. 우리의 구원은 구원 이후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보상은 다르다.

이스라엘의 미래 관련 주요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은 조건에 따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아브라함 언약을 보라.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창17:7, 13, 19; 대상16:16; 시105:9-10).

다윗 언약도(삼하7:13, 16, 19; 대상17:12; 22:10; 사55:3; 겔37:25).

사실 아브라함 언약은 그 이후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해서 주어질 때도 무조건적이다.

예레미야 시절 그들의 배도가 최고조에 있을 때에도 그 언약은 유효하다. 무조건적으로(렘23:5-8; 30:5-11), 31:35-37

가장 잘 표현된 곳이 히브리서 6:13-18,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불변하다(6:17).

유대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시켰다. 그래도 그분의 언약은 불변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2,300회, 100% 아브라함의 후손, 신약: 75회

이스라엘은 유대인으로 구약에서 80회, 신약에서 170회, 이 외에 지파 이름들, 야곱 등 모두 합치면 3000번이 넘는다. 그런데 이 중에 1-2군데 정도만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다 유대인 무천년주의자들: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이방인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구약 시대의 모든 약속 거부, 모두 교회가 차지한다.

문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빼고 오직 축복만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로마서 1-8장, 9-11장 이스라엘(10:1; 11:26, 28)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름, 유대인이라는 말 에스더기 이후, 한 번도 이방인을 가리킨 적 없다(고전10:3).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롬11:2).

단 한 구절: 열적 이스라엘, 갈3:6-7, 갈6:15-16은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

결론

이스라엘을 진짜 그대로 이스라엘로 믿어야 예언 설명 가능(겔37:11-12)

1948년 이스라엘 회복, 이제 성전 건축, 다니엘서의 7년 환난기, 적그리스도(살후2), 재림, 1000년 왕국, 으뜸 민족, 메시아 통치(눅1:31-33; 마23장 39절), 이것이 명백한 성경 해석이다.

888888모세 언약은 조금 다르다(신명기 28-29장), 이것은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다.

성경의 주요 예언 마당: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예언과 언약

지난주, 아브라함 언약 중 위대한 민족,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까지 존속하는가? 천년왕국 때에 으뜸가는 민족이 되는가? 무천년주의, 전천년 믿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창12:1과 7을 보라. 이 땅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땅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성경 예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약속의 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대체신학

시초: 히포의 어거스틴(주후 354-430),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다스리는 지상 왕국이 곧 1000년 왕국, 천주교 신학 체제, 많은 성도들을 죽임, 여기서 나오는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도 무천년설을 가지고 나옴. 칼빈, 루터 등 모두 국교 실현, 교회가 왕국이다.

1. 그래서 이들은 이 약속이 땅에 물리적인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히11:9-10, 13-16). 16절에 나오는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바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땅에 대한 약속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땅에 대한 이 약속은 영원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7년 환난기,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2.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땅에 대한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의 약속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큰 딜레마,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은 문자적인 약속이 맞지만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함. 즉 순종하지 않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면에서 이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통해 아시리아, 바빌론에 의해 멸절, 포로 생활, AD 70년에는 그 땅에서 쫓겨남,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이 결국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옴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
3. 이들의 문제: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 땅에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롬11:25-32), 창15장을 보면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해 전 세계로 흩어졌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온다.
4. 전천년주의자들: 재림 이후 이 땅에 실제 왕국이 이루어짐을 믿는 성도들은 땅에 대한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의 약속이라고 믿는다. 땅에 대한 약속이 단지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를 떠날 이유가 없다. 새 예루살렘만 바라면 되므로, 그러나 그는 떠나서 그 땅에 들어왔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이집트 탈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 땅으로 갔다. 약속의 땅이므로
5.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 약속은 반복된다(창13:14-17). 창15:18 이후, 영존하는 소유(창17:8)

이삭과 야곱과 관련된 약속

이삭에게(창26:3-5)

야곱에게(창28:12-15), 씨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이다.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갈 것 하나님께서 예언(창15:13-14)

결국 기근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민족을 형성함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문자 그대로, 돌아오는 것도 문자 그대로

모세오경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어떤 해석 방법을 취하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땅에서 다른 땅으로 옮겨가는 것을 묘사한다.

1. 모세를 부르심: 출애굽기 처음 몇 장, 기적에 의해 구출됨, 40+40+40,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함 I AM THAT I AM(출3:13-17)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7-11장), 결국 만아들이 죽는 재앙 이후 파라오의 항복,

유월절 사건, 이집트 탈출

2. 40년간 광야 생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 보냄(민13), 12명 중 10명이 악한 보고,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첫 세대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함(민14:34), 왜 스파이를 보냈는가? 그 땅을 정탐하려고, 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므로
3. 이때에 그들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음, 이것이 모세의 구약 제사장 체계, 레위 사람들, 성막, 십일조, 안식일, 속죄일, 레위기
민수기는 이들의 장례 행렬,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율법을 반복해서 알려줌
신명기: 율법 안에 거하면 그 땅에 거할 것이고 아니면 쫓겨난다(신28:63-67).
이 약속에 따라 그들은 그 땅에서 여러 차례 쫓겨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그 땅에 영원히 다시 돌아온다.
4. 여호수아는 요르단을 건너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주었다(수1:2-5; 21:43-45).
그러나 사사 시대에 이들은 그 땅에서 이교도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삿1:27-28).

약 700년 동안 그 땅을 부분적으로 차지함

1. 사사 시대: 배도와 회복의 반복, 결국 마지막 재판관인 사무엘이 등장함, 왕을 달라는 요구에 사울을 주었다가 다시 다윗을 줌(40년, 40년)
2. 솔로몬의 배도(40년), 이후 르호보암 시대에 왕국이 분열됨
북왕국 이스라엘(10지파): 100% 사악한 왕들, 아시리아에 의해 멸절됨(사8:6-8) BC 721년
남왕국 유다(2지파): 몇 명의 좋은 왕들, 바빌론에 의해 멸절됨(렘27:6-11; 39:5-7)
바빌론의 침략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짐 BC 606, 597, 586
3.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렘25:11), 70년이 지난 BC 536년에 유다는 고레스 왕에 의해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감,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땅(대하36:22-23)
4. 이 모든 것은 문자적으로 예언되었고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세 번째 흩어짐(마지막 흩어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나 흩어짐: 첫 번째 흩어짐: 이집트로

두 번째 흩어짐: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예언되고 성취됨

세 번째 흩어짐도 예언되었다.

주님의 예언(마23:38-39; 24:2), 구체적으로 눅21:20-24, 결국 AD 70년에 성취됨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예루살렘 진격, 성전은 남겨두라. 그러나 군사들이 불을 지르므로 약탈이 시작됨, 하는 수없이 도시 자체와 성전을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명령, 군사들이 성전의 금을 차지하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뒤집어서 주변 계곡에 내다버림

요세푸스의 증언: 군사들이 지나간 뒤 성전 산은 광야 같았다. 서쪽 벽만 남음

눅19:41-44, 40년 유예, 로마의 침입,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주님의 예언대로 모두 쫓겨나서 황폐한 땅이 되고 맘

세 번째 돌아오는 일,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일

이스라엘은 두 번 흩어졌다가 두 번 돌아옴

세 번째 흩어짐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옴을 예언하심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마지막 회복 때에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다(암9:11-15).

이사야의 예언(사11:1-12, 특히 11-12; 사66:20)

예레미야(16:14-16; 23:5-8; 30:8-11; 31:31-37; 32:37-44)

에스겔(20:33-38; 34:13; 37:21-22)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림(겔37:24-25; 34:23-24; 렘30:9)

호세아(3:4-5)

아모스(9:11-15)

오바다, 미가,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동일한 주제를 꾸준히 말한다.

결론

1. 이스라엘을 향한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짐
2. 흩어짐과 회복이 세 번 예언 되었다.
3. 이미 두 차례는 문자 그대로 성취됨(이집트, 아시리아와 바빌론)
4. 세 번째 흩어짐(AD 70년), 마지막 회복, 이것은 영원한 회복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5. 이러한 회복은 교회가 이루지 못한다. 교회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없다.
6. 마지막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므로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이 있고 왕국이 있으며 이스라엘이 으뜸 민족이 되어야만 한다.
7. 그에 따라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국가 형성, 사실 영국은 우간다 같은 땅에 나라를 세우라고 함, 이스라엘 No, 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확보,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성경의 주요 예언 마: 다윗 언약과 미래에 있을 다윗의 왕국

지난주, 아브라함 언약 중 땅에 대한 예언, 중동의 저 땅(약속이 땅 가나안)은 누구의 것인가? 이 땅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의 땅인가, 아닌가? 이것의 해석에 따라 성경 예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결론: 저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것이다. 천년왕국까지

오늘의 주제: 왕국(Kingdom), 신구약성경의 가장 큰 주제,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구원에만 초점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왕국 회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뒤 새 하늘과 새 땅

이를 위해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온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삭, 야곱), 새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왕국

아브라함 언약: 위대한 민족과 땅, 그런데 이것이 더 좁혀지면서 메시아 왕국(눅1:30-33)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국을 천국으로 영해한다. 예언을 문자 그대로 혹은 영해?

초기에 나오는 왕국

재림 이후에 정말로 이 땅에 왕국이 서는가?

아브라함 언약(창17:6, 왕들), 사라에게(창17:16), 이삭에게(26:2-5), 야곱에게(28:13-15)

그리고 유다에게(창49:10)

다윗 언약(삼하7, 대상17)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함, 자기 궁을 지음,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성막 텐트(광야 시절)

나단에게 물어봄, OK, 그러나 하나님은 No! 다른 계획을 주심

이번에는 땅의 성전 집이 아니라 더 원대한 계획,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짓게 한다.

그게 끝이 아니다. 다윗의 집을 일으켜서 메시아 가문으로 만든다.

언약의 여러 내용

0. 일단 내가 언제 집을 지어 달라고 했나?5-7)

1. 아들 약속: 다윗의 과거(삼하7:9), 계획(10), 솔로몬 약속(12)

2.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는 솔로몬 왕, 그의 성전 건축(13), 그가 잘못해도 용서(14-15)

3. 다윗의 왕좌 왕국 영원하다(16). 눅1:30-33의 약속

요셉은 솔로몬 계열, 양아버지, 왕국의 법적 지위 차지

마리아는 나단 계열, 어머니, 씨, 가문을 이음, 이 둘을 통해 이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완성됨
대하3:5를 보면 솔로몬과 나단 모구 밧세바의 아들들

4. 다윗의 언약 이해(18-21), 이스라엘 백성 이해(24), 이것이 영원무궁함을 이해함(26, 29)

또한 이스라엘이 영원무궁함을 이해함(24)

5. 다윗의 이해의 본질: 이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호칭(가나안 여인 마15:22; 바디매오 막10:47-48)

6. 이것은 먼 날까지를 포함하는 언약(19), 여기의 왕좌와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읽을 수 없다. 정치적인, 물리적인, 이 땅의 왕국

왕국 재확인(구약)

무천년주의자들: 다윗 언약과 그 안의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하늘에 있는 왕국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곧 교회이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런 것은 찾을 수 없다.

구약 성경의 확인: 다윗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며 완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다윗의 왕좌는 정치적인 왕좌

중요한 것: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처럼 역시 무조건적이며 문자적이다

시89를 보라.

1. 3-4절, 28-29절

2. 30-37절을 보라(무조건적),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사야서 9:6-7을 보라, 정치적, 물리적인 왕국

아들은 강력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다(7).

렘23을 보라(5-8), 특히 5-6절, 또한 렘30:9을 보라: 다윗의 부활

렘33:14-17을 보라: 땅에 있는 예루살렘

겔37:21-28을 보라, 암9:11을 보라, 스4:9을 보라

왕국 재확인(신약)

신약성경의 시작: 눅1:30-33

사가랴의 찬양(눅1:67-75)

하늘의 왕국 선포(침례자 요한과 예수님), 마3:2; 4:17, 23

주기도문(마6:9-10)

예수님의 말씀(마19), 다시 나게 하는 때(19:27-28), 눅22:29-30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마20:21)

승천하시려는 때(행1:6-7)

사도 야고보의 예루살렘 회의 결론(행15:13-18)

왕국과 천국

미국 성경들과 달리 대다수 한글 성경들은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함(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리 하디 보니 여호와의 증인들만 왕국 사용, 왕국 회관(Kingdom Hall)

신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엡 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신 것이다(마4:17).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은 것이다(마27: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신 것이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흥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다른 성경: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기존의 우리말 성경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은 성경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하면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개역성경 눅17:20). 문맥을 볼 때 “너희 안에 있다.”의 ‘너희’는 예수님께서 독자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 왕국이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을 ‘천국’ 혹은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으며 그 결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성경의 주요 예언 1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 예언: 영해 및 비유해석은 독약이다

아브라함 언약: 위대한 민족과 땅, 그런데 이것이 더 좁혀지면서 메시아 왕국(눅1:30-33)
왕국의 구체적인 예언, 삼하7장, 다윗, 다윗 언약,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 다윗 부활
신구약성경의 가장 큰 주제 왕국: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왕국을 천국으로 영해한다.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창3:15, 여자의 씨, 사탄을 부수고 세상을 구원함

아브라함 언약: 민족, 땅(영원히), 왕들, 그의 씨가 복이 된다.

다윗 왕국: 더 구체적이다. 이 모든 것 정리하면 미래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선다.

신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증거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천주교 무천년주의자들은 메시아 왕국을 부인하므로 우리는 증거들을 더 살펴보려 한다.

이유: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

성경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체 경륜

메시아 왕국의 교리적 이슈들

1. 땅에 대한 약속: 왕국이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한다. 진짜 땅이나, 아니면 영적인 땅이나?
2. 다윗을 향한 약속: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 땅에서 그의 왕좌에 앉느냐? 정치적 왕국이나?
3.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많은 이들이 부인한다. 그러면 중동의 어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4. 땅에 세워지는 왕국: 진짜 땅에 세워지느냐?

주후 3세기부터 어거스틴 이후로 교회는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전천년 믿음의 메시아 왕국 해석

1. 역사의 증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전천년 믿음을 확증한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메시아 왕국, 전천년주의가 됨을 인정한다.

수많은 성경 구절 요약: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 1. 메시아가 와서 압제받는 그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왕국을 세운다. 2. 이스라엘은 으뜸 민족이 된다.

스가랴서 14장을 보자. 1, 3-4, 9,10, 16-20

에스겔서 36-48장을 보라. 36:24-29, 37장 마른 뼈 환상, 38-39 곡과 마곡, 39:25-29
40-48장 에스겔의 천년 왕국,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 47:8-12, 48장 이스라엘 지역 나눔,
48장 맨 마지막 절

계시록 19-20장은 분명하게 왕국이 1000년 동안 세워짐을 보여 준다. 19:11-16 재림, 아마겟돈
17-21절, 20장 1-5, 마귀 결박, 에덴동산 같은 곳

초대 교회의 거의 모든 교부들: 다 전천년 믿음, 천년왕국

AD 200년을 지나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세워짐

교회 용어사전(생명의 말씀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리문답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2-3세기
기의 기독교 신학 학파. 철학자 플라톤(Platon)의 이원론적 입장에서 영적 세계의 실체를 강조하
였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이 다소 가려지거나 약화되더라도 신성(神性)
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난을
당했다는 '성부 수난설'을 주장하는 극단적 성향을 나타내는 자들도 있었다. 후에는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신성밖에 없다는 이단 학설인 단성론(單性論, monophysitism)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지배하기도 하였다(이 학설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 사설로 배척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의 인성을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의 분위기와는 상반되었다. 또 성경 해석에서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역사적이며 문자적인 방법을 택한 안디옥 학파와는 달리 비유적·신비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
며 구약을 신약의 예표로 보는 특징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오리겐), 아타나시우스, 키릴 등이 있다.

철학 사전: 이 파에 속하는 신학자들은 지성을 중시하고 사변적이며, 필로 등은 유대교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결합시키고자 했다.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그 대표자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일반적으로 학문이 번성해 있었으므로 기독교 신자이면서 그 교리를 조직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위해서 개설된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교였다.

여기에서는 신학에 대한 연구에 들어서기 이전에 기하학, 생리학, 천문학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철학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연구하였고, 이어서 논리학을 배웠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이라는 과제를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취급했던 것이 이 학교였다.

위키백과: 이와 반대되는 역사적 문법적 방법을 강조한 안디옥 학파가 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배도한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살기 위해 타협하며 내려간 도시

유대교와 헬레니즘 병합, 여기에서 소위 70인역이라는 가짜 성경이 나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플라톤의 철학과 구약 성경을 접목한 인물이다. 초기 크리스천들 중 어떤 이들도 필로의 철학을 신약 성경에다 적용시켜 소위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만들었다.

영지주의: Gnosticism) 주후 1-4세기경 그리스, 로마, 유대, 소아시아, 이집트 등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유행한 이단 사상으로 신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극단적인 2원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적 예수님/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다.

알렉산드리아는 또한 ‘영지주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바실리데스(주후 125년경)와 발렌티누스(주후 120-160년경) 등의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

한편 주후 180년경에 펜테누스라는 사람이 복음 선포자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교리 학교를 설립했고 주 후 19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이 학교를 인수했으며 결국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창설자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학교는 온 기독교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동방에서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서방에서는 히포의 어거스틴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나쁜 것들이 기독교 내로 널리 파급되었다.

이 학파의 특징: 영해하는 것, 필로, 오리겐, 어거스틴, 그 뒤 천주교 시대, 프로테스탄트들 거의 다 무천년주의

영해: 성경 100독 세미나로 유명한 조OO 장로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모두 성경을 비유로 풀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44절에는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빵을 떼면 크기가 작아지고 가루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오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비유로 해석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었다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함부로 비유적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대 변명할 수 없도록 마가복음 6장 43절에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말씀 잔치였다면 ‘남은 빵 조각’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남은 빵 조각들로 가득 찬 바구니를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의 빵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2. 제7장의 144,000명: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제7:4).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 봉인된 자가 14만 4천 명이며, 14장 3절에는 구속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이 구절을 들고 와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는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네들만 구속받은 무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호와와 증인들의 신도 수는 이 숫자를 넘으면 안 되나 봅니다. 이런 이단의 주장에 대해 조언을 구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면 그중에 네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그중에 네가 들어가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해도 그중에 네가 들어가 있다고 믿어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답은 안 해 주고 구원의 확신으로 밀어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다. 3은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두 수의 곱은 12로서 주께서 택하신 열두 지파, 열두 제자를 나타낸다. 12의 제곱은 144이며 여기에 1,000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상징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에게서 나온 언약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르우벤, 영적인 유다, 영적인 시므온, 영적인 갓, 영적인 아셀은 누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3.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한 상징적 해석의 실례

아래 인용문은 이전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한 형제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의 실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이고 예리고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예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 죄악에 물들었다면 -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 받으려면 데나리온 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또 더욱더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목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요 두 데나리온은 2,000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 2,000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과연 어디에 예수님의 재림 내용이 있습니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를 알려주시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과는 전혀 무관하게 해석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그 말씀을 들은 율법사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비유나 상징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영해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 장소, 임마누엘(신성 인성), 십자가 처형, 부활, 유월절 어린양, 승천, 재림 등 모두 문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다시 돌아오는 것 등도 영해의 대상

2. 이스라엘의 약속된 회복: 큰 대언서, 작은 대언서의 핵심, 이사야서를 가지고 살펴보자.

3. 이사야서 11장을 보라

26, 27장을 보라

35장을 보라

40장을 보라

54장

60장

61장

62장

65장

66장

결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 모두 문자 그대로 주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땅, 민족, 다윗의 후손, 왕국, 천년왕국: 전천년 믿음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는 영해의 산물: 오리겐, 어거스틴, 천주교 사상

1948년 5월의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나머지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렘31:3-5(어찌면 바빌론 회복), 그러나 8-10은 최종 회복

31:27-28, 31-37 등

요약하면 30:5-11을 보라

이스라엘이 배도 중일 때도 메시아 왕국 약속이 주어진다(렘23:5-8, 30:4-11). 특히11절

에스겔 39장 25-29도

더 구체적으로 시편 89:29-37을 보라

누가복음 1:32-33도

로마서 9-11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부흥 예언(롬11:26-27)

성경의 주요 예언 11: 세계 역사 예언 개요

지난 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 다윗의 왕좌, 메시아 왕국 예언, 특별히 이사야서 이후 말라기까지, 이것은 천년왕국,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하늘의 왕국 제시, 거부, 재림으로 연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특징: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비유 해석, 영해, 영해는 독약이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 모두 문자 그대로 주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땅, 민족, 다윗의 후손, 왕국, 천년왕국: 전천년 믿음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는 영해의 산물: 오리겐, 어거스틴, 천주교 사상

의문 사항: 지금까지 10번 이스라엘 중심의 메시아 왕국, 그러면 성경에는 세상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성경에는 세상 역사(왕국들)에 대한 예언들이 많고 다수는 이미 성취되었고 나머지도 성취될 것임 세상 역사에 관한 한 다니엘서가 가장 중요하다. 자유주의자들의 공격

다니엘서 개요

기록자: 다니엘, 기록 시기: 주전 606-536년경, 기간: 약 60년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다 백성

주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를 뜻한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까지의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대언자로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눅21:24).

내용: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째 것은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קים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루어졌으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에 붙잡혀 갔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70 이레'의 예언(9장)이 들어 있다.

핵심 장: 2장(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핵심 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2:44), 하늘의 왕국, 4:34-35(하나님의 주권)

핵심 단어: 왕국(57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에"(2:28)

여섯 개의 왕국: 바빌론(2:36-48; 7:4), 메대/페르시아(2:32, 39; 7:5), 그리스(2:32, 39; 7:6), 로마(2:33, 40; 7:7), 적그리스도(2:41-43), 그리스도(2:34-35; 44-45; 7:9-14)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은 세상 역사의 개관을 보여 준다.

(*) 월부우드 박사는 다니엘서에 대해서만 320쪽 짜리 책을 지었다. <성경 예언 해석의 열쇠, 다니엘서>

느부갓네살의 꿈

바빌론의 3번 침공, 1차 침공 BC 606년에 포로가 되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감(단1:1-2) 우상에게 바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작심함(1:8)

이들의 승진(1:19),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2장에는 다니엘이 왕 앞에서 승진되는 것을 보여 줌

다니엘서 2장

2장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역사를 보여 주는 great chapter이다.

2장에는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2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

I.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영을 괴롭게 하심(1)

느부갓네살은 왕국의 미래 등으로 인해 잠을 설쳤다(단2:29; 전5:12).

과거에 하나님은 종종 꿈으로 계시하셨다.

창41의 파라오(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와 야윈 암소 일곱 마리, 좋은 곡식 일곱 개와 마른 곡식 일곱 개)

마2:12, 13의 동방의 지혜자들과 요셉

지금은 꿈으로 일하시는 때가 아니다. 대언 등의 직통 계시는 사라졌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신다. 완전한 말씀이 있다. 계시를 찾으려 다니는 자들은 마귀의 술수에 넘어진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렘23:25-32), 특히 29절

II.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심(2-13)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자기가 꾸 꿈을 잊었을까?(5절)

아니면 꿈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바른 해석을 얻기 위해 지혜자들을 시험하려고 사라졌다고 말하였을까?

지혜자들의 대답(10-11절), 다니엘의 대답(27절), 느부갓네살의 말(47절)

이교도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시 한 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옴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사41:21-23)

기독교의 위대함: 예언이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신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다.

메시아 예언: 적어도 몇 백(초림과 재림)

1. 여자의 씨(창3:15; 마1:20; 갈4:4), 2. 베들레헴 출생(미5:2; 마2:1), 3. 처녀 탄생(사7:14; 마1:22-23; 눅1:26-31), 4. 메시아 앞에 나타나는 사자(사40:3-5; 눅3:3-6), 5. 대언자(신18:15; 행3:20-22), 6. 멜기세덱의 제열(시110:4; 히5:5-6), 7.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됨(사53:7; 마27:38), 8. 부자의 무덤(사53:9; 마27:57-60), 9. 대속의 죽음(단9:26; 막10:45), 10. 승천과 재림 장소 등(행1:11-12; 스후14:4; 12:10; 계1:7)
2.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언 불가능
3. 예수님이 이런 예언들을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
4.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이미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다.

III.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심(14-23)

A. 다니엘을 위해 시간이 연장됨(14-16), 1장과 같은 종류의 일

B. 믿음의 기도(17-19): 이들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단6, 9장 참조), 바빌론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다(왕상8:44-45; 단6:10).

C. 이때에 그 은밀한 일(비밀)이 그에게 드러남(19). secret은 신약의 신비(mystery)와 비슷한 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일(신29:29)

D. 하나님 찬양(20-23):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 찬양

E. 어떤 하나님인가?(21)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역사의 하나님,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21),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약1:5)

F. 시험을 당하면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행12:1-5).

IV.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심(24-45)

A.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세상 지혜자들이 찾을 수 없는 것들(26-27)

B. 28절은 요셉의 말과 같음(창41:16):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이다.

C.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변천을 보여 주신다(28, 29절).

D. 마지막 날들(latter days, last days, last times)은 많이 나오는 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됨(히1:1-2)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향한(창49:1; 신31:29; 단2:28): 그리스도의 재림(호3:5; 미4:1; 율 2:28-32), 교회의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딤후3:1), 배도의 때(벧후3:3),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끝이 난다(살전4:13-18).

(*) E. 큰 형상(31-35절), 금, 은, 놋, 쇠와 진흙, 깎아낸 돌

형상은 세상 왕국의 변천,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때'(눅21:24), BC 606부터 시작되어 환난기 끝까지 진행됨(계11:1-2). 그리고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5-28), 27절 참조

(*) F. 해석(36-45)

1. 금 머리: 바빌론(BC 606-536),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렘51:7)

2. 은 가슴과 두 팔: 메대 페르시아(BC 536-330)

3. 놋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BC 330-63(시리아), 30(이집트)), 알렉산더(BC323 사망)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BC 63-30 이후): 로마제국

5. 단8:20-21을 보면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6.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44-45절)

(*) 둘 왕국

G. 몇 가지 교훈

1.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a.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 섭리로 주관하신다(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b.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신다(2:37-38). 왕들도 멸하신다.

2. 세상의 일들(인간의 업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열역학 제2법칙).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동성애, 인간복제(43절), 천사들과의 결합

3.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된다. 연합이 안 된다(43절). melting pot(행17:26-27)

a. 흙에서 나온 인간은 허무함 자체이다(시39:5)

4.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신다.

a. 후천년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 환난 전 휴거

5.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마6:25-34).

6. 느부갓네살은 겸손해 질수밖에 없었다(2:37-38).

7.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셨다(롬11:33-36).

V. 하나님의 종들이 영예를 얻음(46-49)

A. 느부갓네살은 너무도 놀라서 그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함(46)

1. 행10:25-26의 고넬료

2. 행14:8-18의 바울과 바나바(루스두라 지방 사람들)

B. 하나님 찬양(47)

C. 영예를 줌(48-49)

결론: 예언의 하나님, 세상 역사도, 다음 주부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역사

성경의 주요 예언 12: 구약 성경의 바빌론 왕국 예언 및 성취

지난 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만 다루는가? 아니다. 세상 역사도 다룬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 (*) 느부갓네살의 형상,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단2:44,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바빌론: 성경에 총 286회 나오는 중요한 도시

바빌론(Babylon)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원래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고대 이야기들은 이것을 지지한다(창10:8-11의 창시자 니므롯).

바빌론은 창11:1-8에 처음 언급된다.

바벨탑을 쌓는다.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하늘 높이 올리려고 함,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간섭, 결국 사람들이 흩어져 나감, 바벨(혼동, 혼란, 혼잡), 바빌론

그 뒤로는 언급이 없다. 아간이 흩친 외투(수7:20-21)

그 뒤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예언에 등장함.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유수(왕하 17-25, 대하32-36)

창11 - 바빌론 포로 생활까지의 바빌론 역사는 세속 기록에 잘 남아 있다.

세계 역사: 바벨 탑 이후로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

(*)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사이의 평야 지대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는 그리스어로 mesos(middle)과 potamos(river)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양 강(兩江) 사이란 뜻이다.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도시 국가의 탄생: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두 강 사이의 땅)는 농사짓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것도 물과 먹을거리가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는 끊임없이 수로와 운하를 관리하는 관개 사업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관개 사업을 게을리 하면, 두 강은 넘쳐흘러 모든 도시를 삼켜 버릴 것이다.

하지만 관개 사업 덕분에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어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장사를 하거나 청동으로 무기를 만드는 사람, 전쟁을 담당하는 전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는 도시의 신을 모시는 사제와 도시를 지배하는 왕도 나타났다. 사제나 전사, 왕은 경제력과 권력을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였다. 이렇게 도시는 점차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이것을 도시 국가라고 한다.

전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 이 당시 그 지역 문명은 수메르 문명, 수메르 사람들

수메르[Sumer]는 바빌로니아 남부에 위치하며 세계 최고(最古)의 문명이 발상한 지역 · 민족, 또는 그 문명의 명칭이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해당한다.

수메르 문명은 이집트, 인도, 중국 문명보다 훨씬 오래 된,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다.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1주를 7일, 1년을 12개월로 하는 태음력을 만든 것이나, 60진법에 따라 원주를 360도, 1분을 60초, 1시간을 60분, 1일을 24시간으로 정한 것도 수메르인들이다.

(*) BC 2300년경,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1세, 무메르의 모든 도시 국가 점령, 제국 형성, 그 뒤 곧바로 해체, 그리고 우르라는 왕 등장, 우르 제국, 곧바로 법전을 만들기 시작함

후대에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으로 통합됨, 함무라비(BC 1792-1750)

이 시대 즉 수메르 문명 시대에 아브라함이 출생한다(BC 2000년경)

그 뒤 그 지역은 엘람(페르시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 정복되었다가 다시 구 바빌론이 등장하며 이때 유명한 함무라비가 등장한다.

(*) 함무라비 법전: 1901년 말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고도(古都) 수사에서 발견하였다. 원형은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Istanbul Archaeological Museums)에는 카피본이 전시되어 있다.

높이 2.25m 되는 돌기둥에 게시한 법(揭示法)으로 췌기문자를 써서 전문(前文) · 후문 이외에 282조

의 규정을 새겼다.

구 바빌론과 신 바빌론: 구 바빌론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함. 6대 왕인 함무라비(BC 1792-1750)의 통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

신 바빌론은 BC 620년경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세움, 이것이 성경의 바빌론
다니엘 당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하게 만든 광활한 평야 위에 세워졌다. 성벽의 둘레는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각각 90미터, 22미터였다고 한다(렘51:44-58). 성벽 주변에는 깊은 도랑이 돌아가며 있었고 도시의 네 면에는 25개의 못 문이 있었으며 도시 안에는 정원과 집이 매우 많았다. 느부갓네살의 궁궐은 둘레가 9킬로미터였으며 여기에 공중 정원이 있었다(단4:29-30).

공중 정원: 세계7대 불가사의, 계단식 발코니 위에 식물을 심어놓은 모습이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음. 식물들이 뿜어내는 푸른색을 보기 힘든 바빌론에서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낸 뛰어난 기술력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꼽히게 된 이유일 것이다.

(*) 공중정원은 기원전 600년경 신(新)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2세)가 왕비 아미티스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에 건설한 정원이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이 되자 메디아 왕국의 키약사레스 왕의 딸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았다. 산이 많아 과일과 꽃이 풍성한 메디아에서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빌론에 마음을 두지 못한 채 항상 아름다운 고향의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은 왕비를 위하여 메디아에 있는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빌론에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끌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대 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지금은 그 아름다움을 찾아 볼 수 없지만, 바빌론에 폐허가 된 공중정원의 터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으며 특히 천문학으로 유명했다.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기에 적합했고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라 불렸다(사43:14; 겔17:4).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이 거기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대언자들은 그것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사13:19; 47:5; 렘51:41; 단4:20)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부패와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행하게 되었고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다, 숙곳브눗 같은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러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되었고 성경은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함을 잘 보여 준다(사13:1-22; 14:22; 21:9; 47:1-15; 렘25:1-38; 50:1-46; 51:1-64).

바빌론은 영원히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했으며 느부갓네살의 손자 즉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다리오가 이곳을 점령하였고(단5:31) 그리스 역사가들의 진술 역시 성경과 일치한다. 그 이후부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수사를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바빌론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바빌론은 한때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다리오는 다시 바빌론을 정복한 뒤 거기의 성문을 모두 부수고 성벽의 높이를 25미터 미만으로 줄였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통치 밑에서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주후 4세기까지는 바빌론이 있던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 거하였지만(벧전 5:13) 그 이후부터 바빌론은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약 3세기 전의 일이다.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을 참조하기 바란다(사13-14). 또 신약성경에서 음녀 바빌론은 우상숭배, 미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집단의 상징이 되기도 했으며(계14:8; 16:1-21; 17:1-18; 18:1-24)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교황체제를 가리킨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종교 체제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나부가 보호한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로 주전 600년경에 그의 뒤를 이어 갈대아의 왕이 된 사람.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느부갓레살로도 나온다. 그는 이집트 왕 느고로부터 갈그미스를 빼앗았으며 그 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치고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가 후에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 하에 다시 유대에 남겨 두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1차 침공). 그들은 대개 왕족이나 귀족이었으며 바빌론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의 말과 학식을 가르치고 후에 그들이 궁중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였다(왕하 24:1; 대하36:6; 단1:1).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죽자 외부에서 전투를 벌이던 느부갓네살은 급히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시리아와 유대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갈대아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는 이 포로들을 여러 식민지에 분산시켰으며 또한 벨루스의 신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두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다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 뒤 3-4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말았다(렘 22:1-30).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혹은 여고니야) 역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예루살렘의 주요 기술자들도 함께 끌려갔고 모르드개와 대언자 에스겔도 끌려갔다(에2:6, 2차 침공).

느부갓네살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위해 만든 금 그릇들을 가져가고 여고니야의 삼촌인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시드기야는 9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그 근처의 통치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이집트의 파라오호브라가 시드기야를 도우려고 나오자 그를 대면하여 그의 나라로 쫓아버렸다. 이 일을 끝낸 뒤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마침내 시드기야의 제11년에 그곳을 함락시켰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에 시리아의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정죄를 받았고 왕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뺄 뒤 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왕하24:1-20; 25:1-30; 대하36:1-23).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에 바빌론 도시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예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 바빌론을 치장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자랑의 하나가 되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곳이 아니냐?”(단4:30)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는 한때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짐승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단4).

(*) 다니엘서는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말한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불신 학자들이 여러 있다.

이사야의 바빌론 예언

바빌론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사야 대언자는 바빌론에 대해 예언함: 13, 14, 47장 21, 39, 43, 48장에도 언급됨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절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의 때에 멸절되는 것 예언
특별히 13장에는 멸망이 잘 예언됨

17-19절: 메대 페르시아, 20-22절: 최종 멸망

사14장은 마귀의 패망을 바빌론 왕에 비유하고 있음(4, 12-15)

히스기야 시대 바빌론 방문자들(사39:5-7),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예레미야의 바빌론 예언

바빌론의 유다 침략, 그리고 포로가 되던 시절에 삶

그는 평생토록 이집트가 아니라 바빌론을 섬길 것을 대언함

결국 50-51장(46절, 64절)을 할애하여 바빌론의 멸망 예언: 특별히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

유다를 억압한 대가, 그의 절규: 예레미야 애가(총 5장)

70년 포로 생활 예언(25:11; 29:10)

에스겔의 바빌론 예언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가, 바빌론에서 대언(17, 29, 30, 32장)

다니엘의 바빌론 예언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7장, 벨사살 왕, 1-4절, 첫째 짐승

바빌론 요약

바빌론이 제국으로 등장하기도 전에 구약 성경은 예언을 한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문자 그대로 바빌론은 메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한다.

이것이 성경 기록 예언의 정확성이다.

다른 경전에는 이런 예언이 없다.

바빌론의 영향

정치적인 바빌론은 사라졌으나 바빌론의 사탄 숭배 문화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특별히 바빌론 종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함: 어미와 아기 숭배, 제사장 체제

(*) 알렉산더 히슬롭의 <두 개의 바빌론>(1807-1865년: 지금의 로마 카톨릭 체제는 바빌론 음녀 체제이다.

계시록 17-18장: 짐승 위의 음녀, 적그리스도 체제 위에 올라탄 종교 체제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 혹은 교황 체제를 바빌론 음녀 체제로 보았다.

결국 멸망한다. 나중에 로마 제국 시간에 조금 더 다루려 한다.

성경의 주요 예언 13: 페르시아(이란)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경의 예언 및 성취

지난 두 주: 성경은 큰 틀에서 세상 역사에 대한 일정표도 제시한다. 다니엘서 2장

(*) 느부갓네살의 형상,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단2:44,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왕국,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지난 주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오늘은 그 뒤를 이어 메대 페르시아 왕국 이야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말한다. 페르시아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세상 종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메대 페르시아 왕국 개관

중동 지방의 국가들, 바벨탑 시간,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고대 바빌론(BC 1800년경), 그 이후 아시리아 등장,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신 바빌론 등장, 아시리아는 주전 7세기경부터 세력 약화,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 등장, BC 610년경 메대 사람들(메디아 왕국) 앗수르 정복, 610년경 갈대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수도 니느웨 정복, 그 뒤 패권은 바빌론, 여전히 메대 페르시아 존재
느부갓네살 사후 세력 약화, 페르시아의 고레스 세력 강화, BC 549년 메대 정복, 메대 페르시아 왕국, 그리고 바빌론 왕국 정복, 난공불락의 바빌론 도시만 남음, BC 539년 바빌론 도시 정복 그 뒤 BC 330년경 알렉산더 등장 때까지 중동 지방의 패권, 약 200년 동안
바로 이 기간에 바빌론 포로들 귀환,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에스더 사건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

아직 바빌론 페르시아 등이 등장하기 전에 바빌론 몰락 예언(사13:17-19). 메대 사람들에 의해 예레미야 50-51장 바빌론 멸망, 여기에도 메대 사람들이 나온다(51:11, 28).

성경에 보면 바빌론에 대한 심판은 매우 엄중했다. 극도로 유다 사람들 핍박

반면에 메대/페르시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그 정도로 심하지 않음,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

다니엘서 5장: 바빌론의 멸망

다니엘은 몰라도 '벽에 기록된 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이 장은 임박한 심판을 보여 준다.

바빌론은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짐, 해자, 성벽 둘레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90, 22미터, 돛 성벽, 20년 비축 양식 등

시33:10-11, 비록 바빌론이 정금이지만 끝이 난다. 하나님의 뜻이 선다.

1. 벨사살의 하나님 무시(1-4)

느부갓네살은 BC 562년경 사망, 그 뒤로 그의 아들 에빌브로닥(2년), 네리글리세아르(4년), 나보니 두스(BC556-539),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써 바빌론 도시만을 공동으로 다스림

1절: 벨사살은 메대/페르시아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치

그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염두에 두지 않음

바빌론이 메대/페르시아에 의해 대체된다(단7장)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함

2. 심판 성취(30-31)

30-31절: 바빌론의 멸망, BC 539년,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 BC 606, 68년 되는 해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친척(삼촌)이다. 이 두 사람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림.

메대(Media, 야벳의 아들 마대 창10:2)는 페르시아(엘람, 셈의 아들 창10:22)의 북쪽,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정복됨.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 메대와 페르시아는 거의 한 나라(단5:28; 6:8, 12, 15 등).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하고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졌다(단9:1). 그는 2-3년 정도 통치하였고 결국 메대/페르시아는 페르시아로 합병되어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며 BC 536년에 유대인들의 예루살

렘 귀환을 선포하였다(70년 포로 생활, 통합 왕국의 고레스 1년).
 바빌론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짐.
 메대/페르시아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강의 수위를 낮추고 강바닥을 걸어서 성을 공략함.
 바빌론은 유대인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함(렘 50:33-34).
 바빌론은 사13:19-20대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신비 바빌론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계17:5, 7; 18:2, 10).

다니엘서의 메대 페르시아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메대-페르시아 설명, 일단 2장의 형상, 가슴과 두 팔, 은 왕국(2:29), 두 팔은 두 왕국 혹은 두 민족을 나타냄, 바빌론의 영광보다는 못함
 그 뒤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네 왕국이 이번에는 네 짐승으로 나타난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메대 페르시아는 두 번째 짐승인 곰으로 나옴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7장은 벨사살 왕의 제1년에 받은 계시(7:1), 8장은 제3년에 받은 계시(8:1)

이제 바빌론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음

이 상태에서 8장은 곧 일어날 메대/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 줌
 1-2절: 엘람 지방의 수산 궁에 있었음. 수산 혹은 수사는 바빌론 당시에는 미미한 도시, 후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됨(느1:1; 에1:2).

3-4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두 뿔 달린 숫양, 나중에 난 뿔이 더 김.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후에 페르시아로 통합됨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함, 리비아, 이집트, 소아시아, 인도 등을 정복함.

20절: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

고레스: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18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함(사44:28), 그를 목자요, 기름 부은 자로 부름(사44:28; 45:1),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자(사45:3-4), 바빌론 포로 생활 귀환 명령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한 뒤 바빌론 도시의 왕으로 세워짐(BC 539, 단5:31; 9:1).

2-3년 후에 고레스가 메대/페르시아/바빌론 등을 통합하여 전 제국의 왕이 됨(BC 536)

원래 고레스는 페르시아 전 제국의 왕이 되기 24년 전인 BC 560년경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됨
 그 뒤 메대 정복, 바빌론 정복(다리오에 의해), 그리고 BC 536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됨.

스1:1의 '고레스의 제일년'은 그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해를 뜻함

페르시아의 역할

바빌론은 유다 심판의 도구, 성전 성벽 파괴, 페르시아는 유다 회복의 도구, 성전 성벽 복구

페르시아 시대에 구약의 6권 기록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학개, 스가야, 말라기

페르시아 사람들은 종교적 관용을 베풀

돌아가서 성전, 도시들, 성벽 재건(대하36:22-23; 스1:1-4)

성전 재건은 연기되어 BC 515년경에 완성됨

페르시아의 왕들은 아닥사스다라는 명칭이 붙음(스7:1),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스테르기에는 아하수어로 왕이 나옴

또 다리오 왕(1세)이 나오는데(학1:1, 스1:1) 이 다리오는 단5:30의 다리오가 아니다.

성전은 지어졌으나 성벽은 지어지지 않아 백성이 불안 가운데 있음(느1:1-3).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완공함, 주전 454년경에 경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린 때(느2:1-8), 이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은 때 즉 주후 30년까지의 기간이 69이레, 이제 한 이레가 남아 있다. 그것이 7년 환난기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330년까지 존재함. 그 뒤 그리스 제국

종말에 페르시아의 역할

말세에 이스라엘과 관련한 페르시아 제국

마지막 때 이스라엘 귀환, 불신 상태, 여전히 예수님을 배격함

고집이 세고 듣지 않음, 결국 70이레의 한 이레가 남은, 주로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의 때

야콥의 고난의 때(렘30),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단12, 마24 등)

누가 이 환난을 가져오는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러시아 등이다(겔38-39).

곡과 마곡의 심판

원래 중동 지역은 가장 못살던 곳, 유목민들의 거처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석유가 발견됨, 그 전에는 큰 의미가 없던 국가들

그러나 20-21세기 에너지 전쟁, 중동 지역은 갑자기 부자 국가들이 되기 시작함

이러는 가운데 1948년 5월 이스라엘 국가 건국, 계속되는 갈등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패권 국가

그런데 이란의 호메이니가 들어서면서 친미 팔레비 왕조를 철폐하고 신정 국가 건설

이스라엘에 대해 가장 호전적인 국가, 핵무기 개발, 중동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자원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메시아를 기다림, 여기에 가장 큰 대적 세력이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 혹은 페르시아(기존 성경의 바사)로 나온다.

엘람은 셈의 아들(창10:22), 노아의 손자, 맏아들인 것 같다. 민족들 지도(4쪽), 유대인 아르박삿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사22:6)

19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은 국제무대에서 무명 국가

그러다가 이란에서 석유 발견,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의 고원 지대 쟁탈전, 이란 국제무대 등장

1935년부터 페르시아 대신 이란으로 불림, 그 뒤 그와 그의 아들인 팔레비가 50년 통치

〈알리 바바와 40명의 도둑〉 〈신밧드의 모험〉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그 뒤 급진 이슬람 정권, 그전과는 달리 극심한 반 유대인,

반미 정책, 친 러시아 정책, 아무도 이란이 친 러시아로 설지 몰랐다. 팔레비는 도망감

여하튼 지난 40년간 이란은 반 이스라엘 세력의 중심, 곡과 마곡의 중심

그러나 곡과 마곡 전쟁에서 보듯이 결국 완전히 망하고 만다.

이란 관련 예레미야의 대언(렘49:34-39)

하나님께서 이란의 활을 꺾으신다(35).

그들의 힘의 으뜸 되는 것, 아마도 핵전쟁(36)

완전히 멸절되고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이 모든 국가로 피난감(36).

엘람의 수치(37)

하나님께서 직접 왕좌를 엘람에 세우신다(38).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옴(39).

왜 이란인가?

지금 이란은 페르시아에 존재하던 하만의 영이 다스린다. 하만 유대인 멸절(에스더기)

이와 관련해서 다니엘서는 귀한 예언을 우리에게 준다. 10장에는 다니엘의 21일 금식이 나온다.

여전히 자기 민족의 미래 걱정(14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나타남

영계에서의 전쟁 13절,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이 막음, 미가엘의 등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보호 천사(단12:1, 계12), 전체적으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대적

결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의 주요 예언 14: 그리스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경의 예언 및 성취

지난 세 주: 성경은 큰 틀에서 세상 역사에 대한 일정표도 제시한다. 다니엘서 2장

(*) 느부갓네살의 형상,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바빌론 왕국, 페르시아(이란)의 예언과 성취, 오늘은 형상의 세 번째 왕국, 그리스

그리스 왕국 개관

다니엘 예언 당시 그리스는 작은 나라, 마케도니아(수도는 펠라)

페르시아 BC 536-BC330, BC 334년경 알렉산더는 서아시아 공략, 그리고 330년경 페르시아 정복 성경에는 그리스에 대한 예언이 많지 않다. 그리스가 말라기부터 마태까지의 400년 동안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그러므로 그리스에 대한 많은 예언 불필요

그러나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히브리 성경인 그리스라는 말은 없다. 야완(창10:2), 야벳의 아들, 대다수는 야완이 그리스의 선조로 믿는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섬들도(사66:19; 겔27:13; 단8:21; 10:20; 욥3:6)

다니엘서 2장과 9장의 그리스

(*) 그리스에 대한 예언은 느부갓네살의 형상 기사에 처음 나온다. 늦으로 된 배와 두 넓적다리 그 뒤 BC 556년경 벨사살 왕의 통치 1년, 다니엘의 환상

(*) 네 왕국이 이번에는 네 짐승으로 나타난다.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여기서 그리스는 날개 달린 표범으로 나온다(7:6). 심히 빠르게 움직임, 네 머리, 알렉산더 사후 네 왕국

(*) 그리스 제국: BC 330-63(시리아), 이집트(30-27), 한영/큰글자 13쪽, 스티디 37쪽

알렉산더 대왕(알렉산드로스)

(*) 출생-사망(BC 356 ~ BC 323), 33세, 국적/왕조 마케도니아, 재위기간 BC 336년~BC 323년 필리포스 2세와 올림피아스의 아들로서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도 한다. 그리스 · 페르시아 ·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대왕으로, 탄생에 관해서는 그리스의 작가 플루타르코스(영웅전 작가)가 “올림피아스가 벼락이 배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임신하였다” 또는 “필리포스가 아내의 곁에 있는 뱀을 보았다” 등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당시의 대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 수도인 펠라의 궁정에 초빙되어 3년 동안 그에게 윤리학 · 철학 · 문학 · 정치학 · 자연과학 · 의학 등을 가르쳤다.

그는 호메로스의 시를 애독하여 원정(遠征) 때도 그 책을 지니고 다녔으며, 학자를 대동하여 각 지역의 탐험(探險) · 측량 등을 시킨 일, 또는 변함없이 그리스 문화를 숭양한 일 등은 스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부왕으로부터는 전술 · 행정 등의 실제적인 일을 배웠고, BC 338년의 카이로네 이아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다. 부왕이 암살되자 군대의 추대를 받아 20세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되었고 그리스 도시의 대표자 회의에서 헬라스 연맹의 맹주로 뽑혔다.

(*) BC 334년에 그는 마케도니아군(軍)과 헬라스 연맹군을 거느리고, 페르시아 원정을 위해 소(小)아시아로 건너갔다. 시작은 트로이(트로아)에서, 그 뒤 그라니코스 강변에서 페르시아군과 싸워 승리하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를 해방하였으며, 사르디스(사데) 그 밖의 땅을 점령한 뒤 북(北)시리아를 공략하였다. BC 333년 킬리키아의 이수스(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의 군대를 대파하였으며, 이어 페르시아 함대의 근거지인 티루스(티로스, 두로) · 가자 등을 점령하였다. 대다수 도시들 무조건 항복, 티루스(두로)와 가자만 포위해서 정복, 특히 두로는 본토에서 섬까지 독길을 쌓아서 정복함. 이에 대해서는 겔26:3-5절 예언 참조), 두로는 바빌론에 의해 정복되었지만 최종적으로 BC 332년경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되고 그 뒤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됨, 두로는 페니키아 문명 그리고 시리아 · 페니키아를 정복한 다음 이집트를 공략하였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하구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시(市)를 건설하고 1,000 km가 넘는 사막을 거쳐 아몬 신전에 참배하였다.

여기서 그는 ‘신(神)의 아들’이라는 신탁(神託)을 받았는데, 이후로 그는 만인동포관(萬人同胞觀)을 지니게 되었다. BC 330년 다시 군대를 돌려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가우가멜라에서 세 번이나 페르시아군(軍)과 싸워 대승하였다. 이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도주하였으나 신하인 베크스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계속하여 바빌론 · 수사 · 페르세폴리스 · 엑바타나 등의 여러 도시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여기서 마케도니아군(軍)과 그리스군(軍) 중의 지원자만을 거느리고 다시 동쪽으로 원정하여 이란 고원을 정복한 뒤 인도의 인더스강(江)에 이르렀다. 그러나 군사 중에 열병이 퍼지고 장마가 계속되었으므로, 군대를 돌려 BC 324년에 페르세폴리스에 되돌아왔다.

BC 323년 바빌론에 돌아와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던 중, 3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죽었다. 그는 자기가 정복한 땅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를 70개나 건설하였다고 한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 문화 동점(東漸)의 거점이 되었고, 헬레니즘 문화의 형성에 큰 구실을 하였다. 그의 문화사적 업적은 유럽 · 아시아 ·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데 있다. 그가 죽은 뒤 대제국 영토는 마케도니아 · 시리아 · 이집트 등 네 개의 갈라졌다.

알렉산더와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면에서 독립을 유지하였고 그리스가 메데/페르시아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주전 331년경에 경건한 대제사장 얏두아는 알렉산더 대제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줄로 믿고 그를 영접하러 나갔다. 한편 이런 일에 대하여 꿈을 꾸었던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얏두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다니엘서 8장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과 그리스 왕국

그리스 왕국은 8:5-8에 기록되어 있다. 해석: 21-22

그리고 8장 9-14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 설명, 적그리스도의 예표

9절을 보라. 그는 그리스에서 나온다.

14절의 2,300일을 2,300년으로 잘못해석 해서 안식교가 나온다.

2300일 예언을 예루살렘성의 중건령(B.C. 457년)으로부터 시작되는 2300년간의 긴 예언으로 해석

1840년, 안식교

이스라엘과 그리스: 헬레니즘 이교주의 영향

그리스 제국 시대, 알렉산더 사후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됨. 주인이 수시로 바뀜

오랫동안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음

BC 170년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BC 215-164)는 프톨레미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헬레니즘을 강요하였다. BC 170부터 BC 164까지 혼란의 소용돌이

그는 이집트를 거의 정복하였으나 로마가 이집트를 구원함으로써 정복이 중단되었다.

그는 그리스 문화(다신 문화)로 문화 통합하려함. 그리스주의자 아니면 야만인 취급

그리스 관습과 문화, 그리스 식 이름 등 미리암이 마리아로, 야콥이 제임스로...

그 결과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알렉산드리아의 이단들: 필로, 오리겐, 헤브라이즘 + 헬레니즘

성경의 부패,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해

마카비(마카베오) 반란

마카비 반란(주전 168년경): 셀류시드 왕조의 강압적인 그리스 문화 강요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반감, 주전 169년부터 주전 167년까지 집중적으로 반란 진행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의 관습이 금지되는 사태가 연거푸 발생했다.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주전 168년 에피파네스는 이집트 원정에서 패한 뒤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약탈함

주전 167년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1)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침, (2) 돼지를 잡아 바침, (3) 구약 성경 말살, (4) 1,000명 이상의 하시딤들을 처형함

하시딤: 바빌론에서 귀환해 온 유대인들 세계에 헬레니즘의 문화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서 세속화가 가속화될 때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경건과 충절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시딤(Hasidi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말3:16-17).

이 하시딤 중에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하시딤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신비주의적,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옛세네 파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안티우크스 에피파네스는 저항하는 유대인, 8만 명을 학살

주전 167년 예루살렘 근교의 모딘 마을에 마타디아라는 늙은 제사장, “안티오쿠스에게 제사를 지내라.”

는 명령 거부, “우리 조상들의 언약에 따르겠다.”

제우스에게 희생 제물 드린 배교자를 죽이고 파견된 관리를 죽이는 사건 발생

마카비 반란: 마타디아스 가문 주동

마타디아스의 다섯 아들: 존(Jone), 엘리에저(Eleazor), 유다, 시몬(Simon), 요나단(Jonathan)

이들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 불렸다. 마카비: 영예의 호칭(마카베오, 정치 세력)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혁명운동 시작 + 보수적인 하시딤 합류

게릴라식으로 셀류시드 왕조를 괴롭힘. 셀류시드 왕조에 협조하는 마을을 불사름

BC 166년, 아버지가 죽자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싸움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마카비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에 죽자 유다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진입시킨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여 기원전 164년(165년이라는 견해도 있음) 12월 25일에 제단이 새롭게 봉헌되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이로써 율법에 합당하게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이때부터 유대교는 매년 성전 봉헌절(히브리어: 하누카, 요10:22, 개역성경의 수전절) 축제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표징으로 등불을 점화하였다.

(*) 성전을 정비한 뒤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한 의식을 행했는데, 이때 성전을 상징하는 촛대 메노라(Menorah)에 불을 붙이려 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뒤진 끝에 이방인이 손을 대지 않은 순수한 기름 한 병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름은 하루 동안 메노라를 밝힐 양밖에 되지 않았다.

대제사장은 우선 그 기름으로 메노라에 불을 붙였다. 그로부터 새로운 성유(聖油)를 만드는 데 8일이 걸렸으나, 놀랍게도 메노라의 불빛은 8일 동안 유지됐다. 유대인들은 이 신비로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성전을 탈환한 날부터 8일 동안을 봉헌절로 축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메노라의 기적을 기려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고 부르며, 하누카 기간이 이어지는 8일 동안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지게 됐다.

다윗의 별과 더불어 유대교를 상징하는 메노라는 원래 가지가 일곱 개지만, 하누카에는 가지가 아홉 개인 하누카 메노라, 즉 하누키아에 불을 밝힌다. 하누키아의 여덟 가지는 하누카 기간 동안 하루에 하나씩 차례대로 밝혀지며, 아홉 번째 가지에는 다른 가지에 불을 밝히는 ‘종’(servant) 역할을 하는 ‘샤마시’(shammash) 초를 켜는다.

2018년 12월 10일, 산헤드린 공회는 70개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하누카 명절 끝 날에 제단 봉헌식을 거행함

결론: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 제국 세워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성경의 주요 예언 15: 로마 왕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성경의 예언 및 성취

지난 네 주: 성경은 큰 틀에서 세상 역사에 대한 일정표도 제시한다. 다니엘서 2장

(*) 느부갓네살의 형상,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지난주, 그리스 왕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마카비 전쟁, 하누카 명절, 알렉산드리아

로마 왕국 개관

로마 제국: 그리스도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눅3:1)

로마제국의 역사는 BC 8세기 무렵부터 시작되는데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주해간 한 집단이 테베레 강 근처에 정착하면서 로마의 역사가 시작된다. (*) 설화에 의하면 테베레 강에 두 아이(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버려졌는데 이들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다. 두 형제는 다름으로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물루스는 세력을 넓혀 약 3000여 명의 주민으로 로마(Roma)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건설한다. (*)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이 일대에서 목축과 농업을 주업으로 했는데 이들을 규합하여 왕으로 선출된 로물루스는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원을 창설하였다. 로마는 로물루스 이후 왕정기(王政期, 기원전 753~509)를 거치게 되는데 7명의 왕이 로마를 통치하면서 국가의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왕의 독재적인 1인 지배에 저항하였고 공화정을 열게 되었다. 이는 로마가 거대한 대제국으로 발전하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으며 그리스적인 민주주의 도시국가 운영제도에서 파운 영향이었다.

BC 510년부터 공화정기(共和政期)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로마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시기이다.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지배했고 북아프리카, 아시아까지 확대되었고 북유럽 영국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비대해지고 정복지를 속주로 삼아 통솔하는 1인의 권력이 커지면서 권력이 집중되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였다. 그는 뛰어난 군사전략가로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북유럽 등을 정복하면서 속주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원로원을 무력화시키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공화정 체제였지만 군사독제 체제하에서 황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였다. 로마인들은 카이사르의 영광스러운 업적에 열광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공화정에 대한 신념 또한 높았다. 브루투스(Marcus Junius Brutus)는 카이사르를 암살하면서 공화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로마는 다시 왕정으로 전환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Augustus)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가 되었고 로마는 제정기(帝政期)로 들어간다.

이 당시 유명한 클레오파트라(7세), 안토니우스 이야기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미 왕국의 마지막 왕,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처음에 카이사르를 사랑함(약 30세 나이 차이)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안토니우스, 악티움 해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결, 안토니우스 패배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자살,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 꽃 속에 누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일부러 놓아둔 독배에 가슴을 물려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였다. 클레오파트라 7세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끝이 나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전락하였다

(*) 로마는 영토를 더욱 확장하고 5현제를 거치면서 역사상 인류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평가하는 파스로마나(Pax Romana)를 실현했다. 로마는 정복지의 문화와 신을 인정하는 다문화, 다신교 정책으로 제국의 통합과 번영을 누렸지만,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은 철저하게 응징하였다. 그리고 하나로 통합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많은 교역이 발생하여 도로와 항구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제정기에 등장한 네로, 카라칼라 등의 황제는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며 큰 오점을 남겼고 로마제국의 황제권위가 실추했다. 이에 무력을 가진 군인이 제위를 차지하면서 황제들은 권력다툼으로 단명하게

되었고, 군인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 남발된 재정은 국가를 위기로 내몰았다. 결국 프랑크족, 알라마니족, 고트족 등 게르만족이 국경을 넘어 침입해왔고 페르시아가 강성해져 소아시아 국경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로마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가이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Gaius Aurelius Valerius Diocletianus, 245~316)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제국은 4등분되어 통치되었다. 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명의 황제가 통치하기에 너무 크고 복잡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로마제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정치투쟁은 가열되었다. 마침내 395년 로마제국은 동·서로 분열되어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비잔티움제국(동로마제국)은 1453년까지 존속했다. 로마가 이룩한 지중해 세계의 통일은 세계사상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로마는 무려 2000년정도 세상을 지배하였다. 영토, 기간, 영향 면에서 가장 큰 왕국

신약성경 사도행전, 로마서, 딤후 등에서 로마는 언급되지만 구약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없다.

그러나 다니엘서 2장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 다음 왕국으로

단2:33, 7:7-8의 네 번째 짐승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통치 BC 170년경

(*) 이보다 70년 전인 BC 240년경에 로마는 시칠리아 섬 정복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있었다. 로마 대적, , 티레(두로)의 고대 페니키아인(人)이 북아프리카의 튀니스만(灣) 북 연안에 건설한 도시 및 도시 국가. 튀니지, BC 800년경 설립, 아프리카와 스페인 사이의 무역

카르타고는 BC 202년 스페인 정복, BC 201년경의 1차 포에니(페니키아) 전쟁, 한니발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진격, 스코피오에게 패배

그러나 로마가 스페인 정복, 카르타고는 속국이 되고 BC 146년에 멸망함

그 뒤로 로마는 알프스 동쪽으로 진출하여 그리스, 소아시아 지방을 침략함

단7:7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드리아까지 진출, 로마에 굴복함, 로마의 사신,

이때 안티오쿠스 4세와 로마 사신의 회견 과정, 물러나라는 로마 사절의 요구에 안티오쿠스 4세가 신하들과 이야기 좀 해보겠더니 로마 사절이 대뜸 그 자리에서 안티오쿠스 4세 주위에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선에서 나오면 로마랑 전쟁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자 안티오쿠스 4세는 몇 번 사정하다가 결국 사신이 그 선을 다 그리기 전에 즉시 철수해 버렸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BC 63년경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 정복됨.

그 뒤 북쪽으로 진출,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단2:40

로마 관련 성취되지 않은 예언

느부갓네살의 형상은 예수님 이후 200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함구(단2:40-44) 설명

주님의 초림 이후 점프해서 재림으로 넘어간다.

형상의 두 다리(동로마, 서로마), 그러나 진흙과 쇠로 되어 있는 발에 대해서는 역사의 언급이 없다.

즉 단2:34-35에 대한 역사는 없다.

로마는 갑자기 붕괴되지 않았고 서서히 붕괴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탈리아만 나왔다.

그 뒤 훈족의 침입, 455년경에 반달족 등에게 굴복하였다.

제국의 동부는 이슬람 제국에 의해 침식됨. 이슬람 제국은 심지어 스페인까지 진출함

그 뒤 투르크 제국이 지배함

투르크는 1453년에 모함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 점령, 마지막 황제를 죽임

20세기 초반까지 이스라엘 점령, 1차 세계대전에 의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해방됨
이런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음

그 이유, 모든 왕국을 무너뜨리는 바위,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 이때에 천년왕국이 세워짐
단2장의 형상이 갑자기 부서지는 것, 즉 로마 제국의 최종적인 붕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단2장과 7장이 성취되려면 마지막 시대와 관련해서 로마 제국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의 최종 치리자는 예루살렘을 멸절시킨다(9:26). 단2, 7장의 로마 예언은 초림 때까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는 역사상에 없다.

재림 때의 마지막 로마는 하늘의 왕국에 의해 멸절되어야 한다. 단7:13-14(천년왕국)

(*) 구약 시대 예언의 산봉우리 그림 설명

마지막 시대의 로마는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 전의 일은 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은 19장, 17-18장은 마지막 왕국의 멸망을 말한다.

그 왕국은 바빌론이다. 그것이 무너진 뒤에 주님의 재림(18:2-8)

17장은 바빌론 음녀(2-5).

나중에 열 뿔이 등장한다(12, 단7:7-8).

이들이 음녀를 죽인다(16)

이 여자의 정체(9, 18). 그러므로 마지막 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주교 세력

18절: 일곱 언덕

천주교는 로마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재림 때의 로마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영적인 체제,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로마를 바빌론, 천주교 세력으로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연합으로 보았다. (*) 100% 맞지는 않는다.

그러나 근거는 유럽이다. 유럽 연합의 상징 여자, 바빌론 건설 등 *), (*)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 바빌론 세력, 로마 천주교 세력, 전 세계의 모든 배도한 자들로 봄이 맞는다.

바벨 탐

(*) 데이브 헌트 Woman rides the beast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적그리스도의 때를 가리킨다.

성경의 주요 예언 16: 다니엘의 70이레 예언 및 성취

지난 다섯 주: 성경은 큰 틀에서 세상 역사에 대한 일정표도 제시한다. 다니엘서 2장

(*) 느부갓네살의 형상,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지난주, 로마 제국광 음녀 바빌론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의 예언은 거의 다 다룸, 오늘과 다음 주 마지막 예언, 다니엘의 70이레, 예레미야의 새 언약, 다니엘의 70이레를 해석하려면 다니엘서 9장을 잘 보아야 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이레

성경의 예언은 제대로 잘 선포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였다(신18:20-22).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고 문맥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단8-1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마24-25, 계4-19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1절: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고레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짐(단5:30-31), BC 539년경

2절: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임을 알게 됨

‘주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25:1-14: 포로생활의 이유와 기간 (11-12), 렘29:10-14도 기간(특히 10절), 70년인 이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레26:40-42; 대하36:19-21).

70년 포로 생활: (1) 불순종의 결과(레26), (2) 땅이 다시 힘을 얻음, (3) 다니엘의 위로
다니엘은 포로생활이 BC606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3년 정도만 더 지나면 끝이 날 것을 알았다.

3-19절은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3절: 기도를 위한 준비(금식), 그는 기도의 사람(6:10-11)

여기서 그는 특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레26:40-45; 대하7:14)

5-15절: 백성의 죄악 고백

11절: 모세의 저주(신28)

12절: 예레미야애가(1:1-2; 4:1-4; 9-10)

16-19절: 긍휼 간구, 은혜와 긍휼

20-27절은 기도의 응답과 70이레

20-21절: 기도의 응답

가브리엘(8:16)이 그에게 손을 내밀, 그는 바빌론에 있지만 영과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음
저녁 봉헌물을 드릴 때: 오후 3시(출29:38-41; 왕상18:36; 행3:1; 10:30)

22절: 능숙함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과 관련이 있다.

23절: 간구가 시작될 때,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모름

그 일과 그 환상(계시):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일,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 구체적으로는 24-27절에서 설명된 것, 8장의 환상이 아니다. 8장은 70년, 70이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70이레

24절: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이레를 정하였다.

여기의 이레는 단순히 일곱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곱을 70개 정하였다. 그러면 일곱 무엇인가?(초, 분, 시간, 날, 달, 해..)

24절을 보면 70이레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6가지를 하신다.

1. 죄와 관련된 것: (1)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침, (2) 민족의 죄들을 끝냄, (3)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룸.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포로 생활, 예수님 이후로도 마찬가지,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내용, 죄 문제, 어떻게 민족의 죄를 처리하는가? 응답: 메사야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1) 그분은 온 세상의 죄들(요1:29; 요일2:2) 제거

2. 의와 왕국과 관련된 것: (1)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주님의 재림은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의로운 왕국(렘23:5-6; 31:31-34; 사51:6-8)), 의로운 통치(사4:2-6), (2) 환상과 대언 불필요(사11:9; 함2:14; 숙13:1-4), (3) 메시아의 기름부음, 지극히 거룩하신 이(the most Holy) 혹은 지극히 거룩한 곳, 킹제임스 성경은 인격체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에스겔서 40-48장의 성전으로 보기도 한다.

결국 이 6개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됨. 스가라서 12-14장을 보면 자세히 나옴.

- (1)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 용서, (2) 예루살렘 재건축, (3) 성전과 섬김 사역 회복

25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70이레 기간 설명, 490년으로 일단 이해하고 뒤에 설명

예루살렘 회복 및 건축, 1. 고레스 시대 유대인 귀환(BC 536, 스1), 2. 아닥사스다 시대 에스라 귀환(스7:12-26; BC 457) 3. 아닥사스다 시대 느헤미야 귀환(BC 445, 느2:5-8) 성벽 건축,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약 40년 집권)

그 명령부터 메시아까지 7이레+ 62이레=69이레, 483년, 이때에 거리와 성벽이 건축된다.

26절: 그때에 메시아가 죽는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나이다”(요1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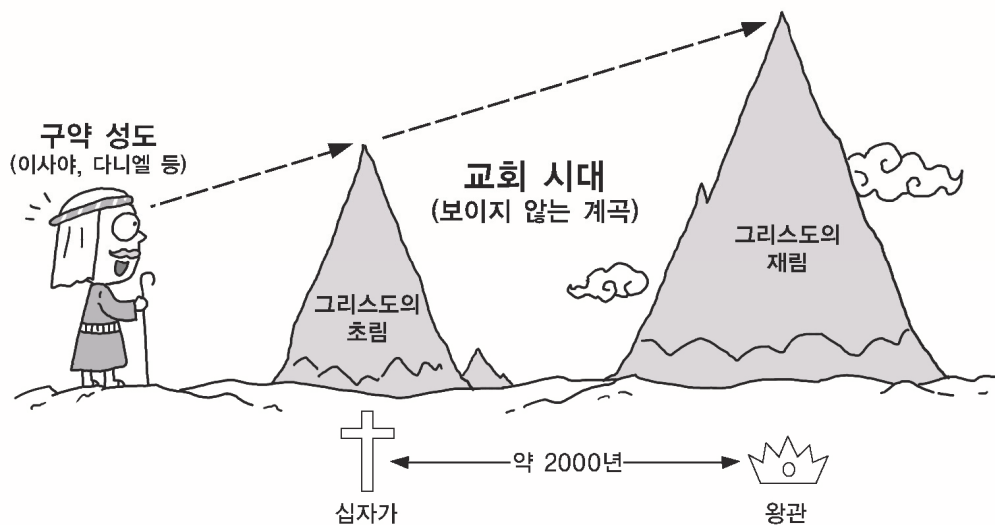
그리고는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등장해서 도시와 성소 파괴, 홍수(계12:13-17), 황폐하게 하는 것(마24:15-16)

메시아의 죽음 이후로 시간을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감

이 기간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엡3:1-13).

1. 구약시대 유대인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다.
2. 그러나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다(미5:2; 사9:6-7; 단7:13-14; 렘23:5-6).
3.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27절: 그(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함(7년)

3년 반 이후에 가증함을 드러냄(살후2:3-4).

후반부 3년 반: 큰 환난(마24:21; 계12:14),

적그리스도(단7:25-27; 8:23-25; 계13)와 그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롬11:25-27)

마지막 한 이레=7년 환난기

I. 환난기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다.

B.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마24:29-30).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휴거와 부활(살전4:13-18)

6. 환난기 시작: 적그리스도와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됨(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땅에 임하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C. 환난기: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9장

D. 환난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1. 가령 계시록 6장,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이 언제 일어났는가?

2.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는가(계13:1-12)?

3.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가(계13:14-15)?

4.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던 때가 있었는가(계13:16-17)?

II. 특별한 고통의 때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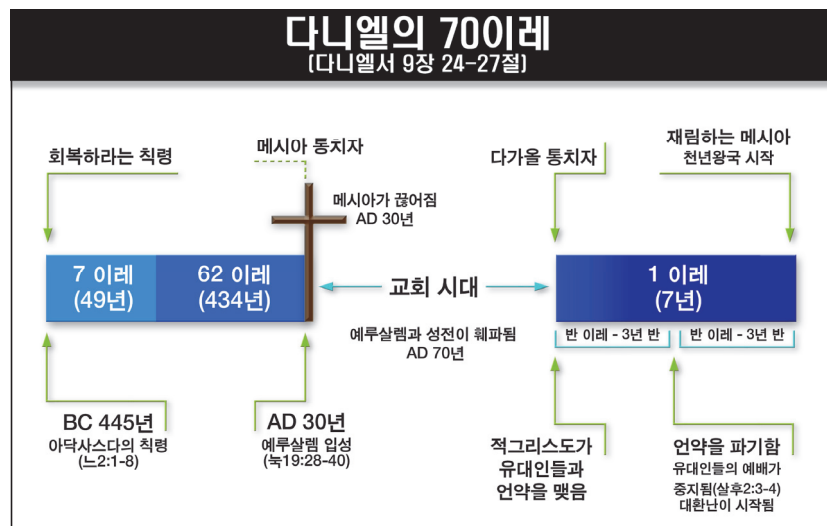
- B.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준다.
- C.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마24:21).
- D.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한다(렘30:6-9).
- E. 바로 이런 기간이 환난기이다. 환난기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대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날’
- F. 스가랴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다(슥13:8-9).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 G. 환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 H. 예수님의 왕국 제안, 유대인들의 거절, 왕국의 연기, 재림 때에 왕국 시행, 그 전에 환난기 필요
- I. 이때에 교회는 휴거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III. 환난기간: 70째 이레

-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의 70이레
- B.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 24절, 70이레는 490일이다. 483일 + 7일 = 총 490일, 여기의 하루를 실제 하루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1.36년 No! 하루를 일 년으로 보아야 한다(민14:34; 겔4:6).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목사들이 이에 동의한다.
- C.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40년경, 그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 D.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30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그리스도까지 483년,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년
- E. 27절은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7년)을 의미한다.
- F.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 G.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 환난기는 후반기 3년 반이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1.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단12:4),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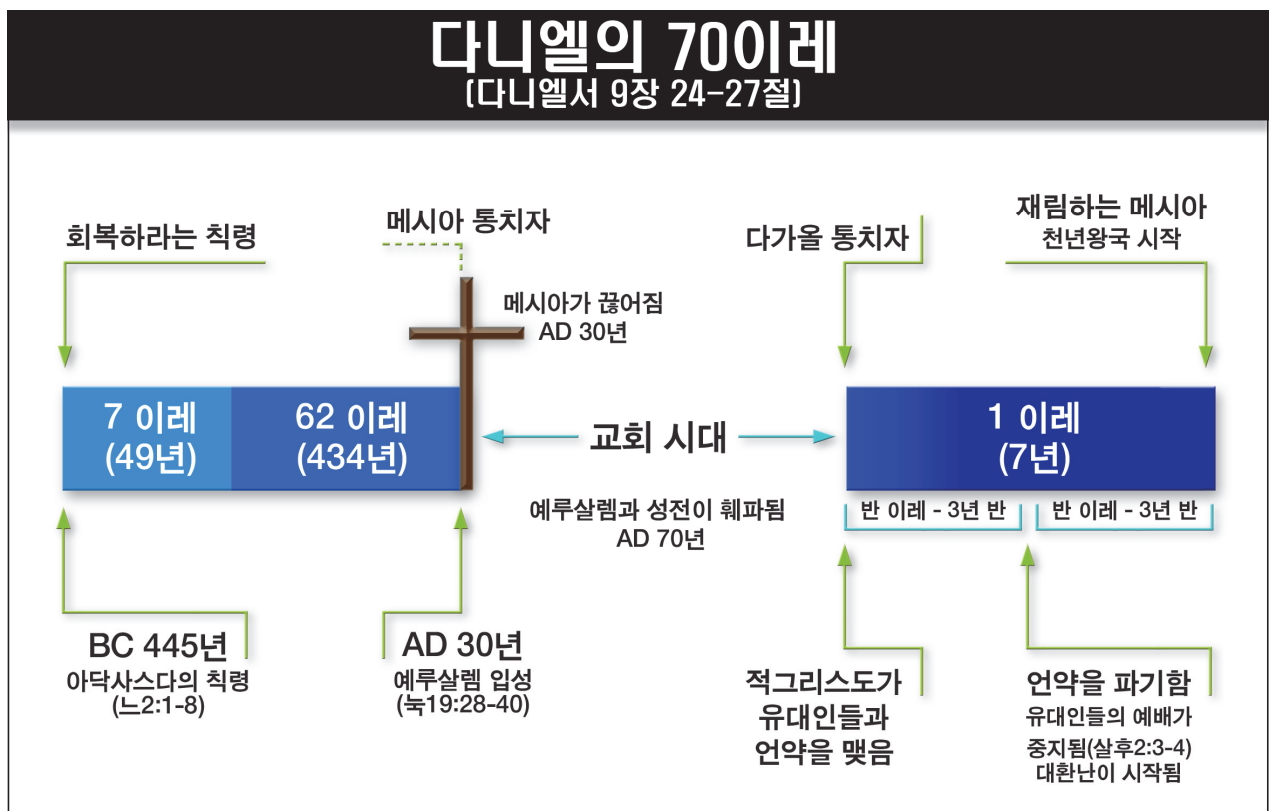


2. 1,260일(계12:6, 11:3), 3. 마흔 두 달(계11:2; 13:5),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 H.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떼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다.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휴거와 부활(살전4:13-18)
6. 환난기 시작: 적그리스도와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어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됨(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땅에 임하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성경의 주요 예언 17: 새 언약의 예언과 성취

지금까지 16번 강해, 오늘은 구약의 예언 종결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한 은혜의 말씀 그러나 구별된다(요1:17).

구약은 다 율법이 아니다. 신약은 다 은혜가 아니다. 그럼에도 둘은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의 구약: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주요 항목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해야만 하였다.

율법 시대라 하여 은혜가 없던 것은 아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와 용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방법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다. 짐승의 대신 속죄, 예표
반면에 신약 시대는 은혜의 교리에 중점

예수님이 대신 속죄를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를 보여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다.

히12:24, 피에 근거한 새 언약의 증보자

과거 구약 시대에도 피에 의한 대신 속죄 존재 및 인정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

새 언약의 중심 은혜

언약: 약속, 약속을 이루겠다고 엄중하게 서약하는 것

쌍방 간의 언약: 두 상대가 서로 약속하고 서원함

일방적인 언약: 한 상대가 모든 것을 다 이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사람의 기여 없음, 믿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어짐

신약 성경은 이런 은혜에 대한 사례가 많음

로마서; 믿음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설명, 은혜 설명

1. 율법과 상관없는 의

구약시대: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의로 인정받음

신약시대: 율법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의(롬3:21-23)

이런 개념은 구약과는 심히 다르다.

율법은 의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죄를 보여 주는 것이다(롬3:20).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가 필요하다(23).

구원의 기초 동일: 예수님의 믿음(22)

롬3:24

여기의 구속(redemption): 속박에 있는 자를 빼내게 위해 값을 치름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심

롬3:25-26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희생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구원(3:25)

히9:15-17

구약 시대 구원: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표로 받은 것이다.

신약 시대 구원: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금으로 받은 것이다.

엡2:1-3, 엡2:4-7, 엡2:8-10

우리의 구원: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새 언약 교리의 문제들

새 언약의 은혜 교리는 신약 성경에 수없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렘31:31-37

이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이 극도로 배도하던 시절, 바빌론 포로 생활 전에 주어짐

그들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율법 준수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향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1. 이스라엘에게 주어짐: 야곱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음
2. 모세의 율법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율법: 보상의 개념, 그러나 여기의 새 언약: 완전히 은혜, 배도의 시절에 주어짐,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기 위해 예언됨, 사실 율법 체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이 남
3.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30:7) 이후에 실현됨, 이 고난의 때는 보통 대환난(마24:21), 마24장, 제6-18장,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온다(렘 30:10-11; 18-21; 31:8-14, 23-28).
4. 새 언약은 모세의 율법 체계를 대체하고 돌 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판에 기록된다(31:33).
5.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영적 축복, 그들의 뛰어난이 포함된다(31:33).
6.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레 드러나므로 아무도 대언하거나 선포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메시아가 왕이심을 안다(사11:9; 스13:2-3). 또한 메시아가 가져오는 왕국을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은 과거나 현재에 이루어진 적이 없다. 지금은 가서 전해야 한다.
7. 새 언약에는 용서와 은혜, 축복 등이 포함된다(31:34).
렘30-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며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8. 예레미야 외에도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은 이런 것들을 예언하였다.
1세기 전의 이사야(사61:8-9), 이스라엘과 영존하는 언약
9.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렘32:37-41).
10. 예레미야 이후 에스겔 대언자(겔37:21-28)

이런 모든 대언들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며 지금까지 성취된 적이 없다.

신약 성경에 드러난 새 언약

1. 신약 성경에는 새 상속 언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약에만 총 14번
마26:28; 막14:24; 눅22:20; 고전11:25; 고후3:6; 히7:22; 9:15-20, 계11:19
언약(롬11:27; 히8:61-3, 9장 10장 등)
2.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도 새 언약이라는 사용된다(롬11:26-27).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말한다.
3. 특별히 히브리서 8장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히브리 사상,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모세의 구약보다 낫다(히 8:6). 그리고 나서 사도는 곧바로 렘31:31-34를 언급한다(히8:7-12).
이 구절은 교회가 이스라엘의 유산을 물려받음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히8:13을 보라. 렘31:31-34를 언급한 것은 이제 구약이 폐기되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즉 예레미야는 구약이 폐기될 것을 예언하였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시 강조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렘31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있다면 재림 이후에 왕국이 있다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너진다.
4. 새 언약 시대의 특징: 메시아의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통치하므로 그분에 대한 지식 편만, 복음 선포 불필요, 이스라엘의 회복, 해와 달이 영구히 존재하듯 이스라엘 존재(렘32:35-36; 33:19-26)

새 언약에 대한 해석

모두가 동의하는 것: 예레미야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왕국, 이스라엘에 의해 성취됨
그런데 성경에는 새 상속 언약이 있지 않는가?(마26:28; 막14:24; 눅22:20), 주의 만찬 등
이 새 상속 언약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 오직 절대적으로 이스라엘과만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
이스라엘을 향한 새 언약

교회를 향한 새 상속 언약

이 둘 다는 십자가의 죽음에 의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 은혜의 언약에 따라 아담부터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새 언약도 은혜의 언약

교회를 위한 새 상속 언약도 교회를 위한 은혜의 언약

새 언약 요약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 아담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됨

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1.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엡2:8-9), 행위 no
2. 구원은 오직 은혜로, 공로 no
3.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다(요1:12-13).
4.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새 언약, 재림의 때, 왕국,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예수님이 직접 주신 새 상속 언약: 이방인과 유대인이 포함된 교회에 적용됨, 이루어지고 있다.

성경의 주요 예언 1부: 메시아 왕국과 산상수훈의 관계

지금까지 17번 강해(구약성경), 오늘부터 신약성경의 예언들과 성취 시작

저자인 윌브루드 박사가 보여 주려는 것: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핵심 주제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임을 알게 된다.

구약 성경의 핵심: 왕국,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창5:1; 마1:1)

이것을 무시하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식의 천주교 해석을 하면 성경이 막힌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마태복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구원의 복음으로 이해하면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예언의 해석이 가능하다.

유대인들의 기대: 왕국이 임하는 것(마3:2; 눅1:31-33, 눅24:19-21; 행1:6)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여기에는 왕국과 관련된(혹은 왕국 백성을 위한) 도덕 윤리적 예언들의 성취가 담겨 있다.

이것은 왕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첫 번째 주요 가르침이다.

1. 침례자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마3:1-12; 막1:2-8; 눅1:13-25; 57-80; 3:1-19; 요1:6-8, 15-37)

침례자 요한의 출생은 이미 이사야서 40장 3-5절에 예언되어 있다. 말3:1에도

2. 침례자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로 인도한다(마1:1-2:12; 19-23; 눅1:26-56; 2:1-40; 3:23-38; 요1:14).

침례자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에 대한 근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심
요한의 사역(요1:31)

3. 가까이 다가온 것으로 선포된 왕국

공생애 시작 메시지(마4:17; 막1:14-15), 왕이 왔으므로 왕국이 가까이 왔다. 현대 역본들 막1:14, 하나님의 복음 No!

물론 여기의 왕국은 구약성경에서 누누이 거론된 메시아 왕국이다(담2:44; 7:13-14; 눅1:31-33).

4. 산상수훈의 윤리적 성격

산상수훈은 마5-7장에 기록됨, 일부는 막4:21-23; 눅6:20-49; 8:16-18; 11:1-4, 9-13, 33-36에도 있다.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 왕국,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면 왕국의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지배, 거기서 해방, 독립, 또한 약속된 물질적인 복,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왕국이 세워지면 그들에게 주어질 윤리도덕 등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자격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음도 알지 못하였다. 산상수훈은 이들의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국 백성의 윤리 도덕적 규범을 준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에 대해 오해하므로 여기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자신이 세울 왕국의 도덕규범을 알려주신다. 천국이 아니라 왕국
물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왕국의 실현은 재림의 때로 연기되었다(마23장을 보라).

그럼에도 우리는 일관된 해석을 위해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산상수훈 전체를 복음의 메시지로 해석한다. 그러면 행위 구원 메시지(로마서 등과 큰 차이)

여기에는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원리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왕국의 규범이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죽음, 부활 등이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은 1차적으로 왕국 백성의 생활 규범이다.

또 하나의 극단: 이것은 오직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없다.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야 할 원리들이 있다.

세대주의, 경륜, 경영 방식과 주요 경영 원리는 달라도 생활양식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십계명: 예나 지금이나 다 지켜야 한다(안식일은 주일로 이해).

산상수훈은 구원의 방도가 아니라 왕국 백성의 규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들이 있다.

산상수훈의 배경(5장)

왕국의 선포(마4:17), 그리고 23-25절

관심사: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의 외적 형식적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것들 철저히 무시

예수님의 강조점: 외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위선자 No!

그래서 먼저 마5:3-5가 주어진다. 이것들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상관없다.

그리고 곧바로 6-7절이 주어진다. 왕국 백성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한다(5:20).

바리새인들의 의: 스스로 의롭다 하거나 남들에 의해 의롭다고 불림

그러나 왕국 백성은 의를 사모하는 내적인 갈증, 롬10:2-3절

또한 바리새인들과 달리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곧바로 8-9절이 나온다.

마음이 순수한 것, 생각이 순수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은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에 대한 복을 언급하신다(10-12).

많은 경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 체계로 사람들 핍박함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천국(하늘)에서도 복이 있다고 하심

그러므로 까닭 없이 핍박당하는 자들은 모든 세대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참된 성도는 땅의 소금(13), 바리새인들 소금기가 없는 소금

세상의 빛(마5:14)

모세의 율법과 왕국의 관계(5장)

사람들이 놀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므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왕국의 관계에 대해 의문

예수님의 말씀(마5:17)

그리고 성경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심오한 말씀을 주심(마5:18).

모세의 율법은 천년왕국에도 존재함.

모세의 많은 규정들이 유대인들의 왕국에 그대로 적용(겔40-48장)

말씀은 점 하나라도 보존된다. ㄱ(기역)과 ㅋ(키읔)

율법의 중요성 강조(마5:19)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 강조(5:20)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땅의 것, 하늘에서 난 것 필요

예수님의 살인 설명(마5:21-22)

서로 문제가 생기면 화해하는 것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이다(5:23-26).

또한 간음 이상의 간음 설명(마5:27-28)

이혼 설명(31-32)

이런 것들이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의 자격 요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하심(33-42)

특히 원수들 사랑(43-44)

믿음의 삶에 대한 보답(6장)

외적인 의가 아니라 내적인 의 강조

구제하는 것(마6:4)

기도하는 것(6:5-8)

기도의 샘플(6:9-13):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권능 인정, 왕국의 도래 간구, 일용할 빵, 우리의 죄들, 상대방 용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

금식(16-18)

물질 문제(19-21), 왕국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누리는 복(20)

섬길 주인 선택의 문제(6:24),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탐욕(눅16:14)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6:25-27), 바리새인들은 의식주 문제 염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뢰

날짐승들, 백합들을 보라(6:26, 29), 그런 것들은 이교도들이 구하는 것(32)

그러나 왕국 백성은 다르다(33-34).

생활양식(7장)

왕국 백성의 생활양식과 바리새인들의 양식 대조(7:1-2, 3-5)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라(7:6).

왕국 백성의 기도 생활(마7:7-8), 아버지와 아들의 기도 관계(9-11)

생활양식 요약(7:12), 황금률

결론: 좁은 길과 넓은 길(13-14), 왕국 백성의 길, 바리새인들의 길

누구나 원하면,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자는 적다.

저짓 대언자들 경고(15-20), 나무는 열매로 안다. 다수의 율법 교사들

저짓 고백 경고(21-23)

두 개의 집(24-27),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여기의 반석,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고백(7:28-29)

결론

산상수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심 강조, 내적 변화 및 외적 변화 필요

이것은 왕국 백성을 향한 영적인 가르침, 윤리적인 가르침, 그러나 왕국은 여전히 정치적인 왕국

유대인들의 오해 제거: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

이것들을 바로 이해해야 성경의 큰 주제인 왕국 이해, 예언 이해

성경의 주요 예언 19: 마태복음 13장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와 메시아 왕국 예언

예수님의 공생애, 하늘의 왕국 선포(마4:17), 산상수훈: 왕국 백성을 위한 규범(마5-7장)

그 뒤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함

사35:5-6 성취, 35장 자체는 재림 시, 5-6은 초림 시 성취됨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출자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음, 여전히 불신 상태

그 뒤 12제자 선정, 기적들을 행하게 하심(마10:5-8)

이러는 가운데 심지어 침례자 요한도 감옥에 갇힌 채 예수님 의심(11장)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위대함 선포(11)

요한과 예수님 거부하는 세대(16-19)

그리고 기적들을 많이 베풀 도시들 책망(마11:20-24):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 등

이스라엘은 침례자 요한 거부, 예수님도 거부, 결국 대다수는 소망을 잃게 됨

예수님의 초청(마11:28-30)

바리새인들이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 비난, 안식일 문제, 예수님은 사42:1-4절 인용(마12:17-21)

주의 종,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역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고 함(12:22-30),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12:38-41)

본인의 죽음, 매장, 부활

점점 서 이스라엘의 거부 확신함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왕국이 초림 때에 실현되지 않고 재림 때에 실현됨을 보이기 시작함

아마도 공생애 후반부, 3년쯤 지났을 시점

바로 이때에 오늘의 토픽인 마13장이 주어짐

마23장을 보면 왕국의 연기가 명백하다(37-39). 그러나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사실 사람 눈에는 연기됨,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다. 하루가 천년과 같다. 영원의 관점

예수님은 메시아 입증을 통해 왕국을 주려 하심, 그러나 그들은 거부함, 이미 하나님은 아심

그 결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십자가 처형, 온 세상 구속을 위한 그분의 계획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 불변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왕국 약속의 성취가 방향을 바꿈

출애굽 이후 가데스바네아 사건: 12스파이, 악한 보고, 40년 광야 생활(민13:26-14:25)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이 불변,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방향이 바뀜

그러나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감

마13장에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 시대 상황,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마13:11)

무슨 말인가? 하늘의 왕국 이야기다. 그런데 신비들이다.

신비(mystery)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시대에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단수 22, 복수 5, 총 27회 신약에만)

골1:26-27, 교회의 신비, 유대인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 안에서 몸을 이루는 것(엡3:5-6)

하늘의 왕국: 구약시대에 예언됨,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완전한 왕국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구약시대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러므로 마13장은 구약성경에는 없음, 드디어 드러나는 것

후천년주의자들: 점점 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 세상이 좋아진다. 그리고 주님 재림

이런 식으로 마13을 보면 해석 자체가 반대로 됨

13장 및 성경 전체의 세계관: 세계는 점점 더 악해지고 주님 재림 전에는 악이 승리함

무천년주의는 실제 왕국은 없고 구약시대 하늘의 왕국(메시아 왕국)이 우리(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므로 마13장 해석 자체 불가능
천년주의의 믿음: 예수님 재림, 그리고 심판, 그리고 왕국
지금까지 예수님은 비유 없이 진리/사실 설명

여기서는 비유 사용, 대상 믿음을 가진 자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함(13:11-13)

비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움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13:1-9; 막4:1-9; 눅8:4-8)

비유 뒤 제자들의 질문, 주님의 대답(마13:11-13), 그리고 사6:9-10 인용(14-15절)

비유 설명 (마13:19-23), 읽는다. 왕국의 말씀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듣는 사람

천년왕국의 특징: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된다(렘31:33-34).

그러므로 이 비유는 천년왕국 비유가 아니다. 왕국의 비유, 신비, 여러 종류가 있다.

2. 알곡과 가라지(마13:24-30; 36-43)

씨 뿌리는 자 비유: 듣는 것의 중요성

둘째 비유: 왕국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섞여 있다.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림, 원수가 나쁜 씨를 뿌림(24-25)

제거할까요?(28) 그대로 두어라(30)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여기를 보면 가라지들을 먼저 제거한다(30). 휴거가 먼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물 심판의 경우 좋은 고기들이 먼저 취해진다(13:48).

또한 이것은 휴거를 말하지 않는다.

이 상황은 휴거 이후 7년 환난기 끝 부분을 가리킨다. 재림 바조 전의 상황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 다시 잘 설명한다(37-43절).

이 비유는 선이 점진적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는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악이 성행함을 보여 준다(딤후3:1-9)

그러므로 여기의 비유는 왕국의 신비 즉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 드러나는 신비를 보여 준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이다.

3. 거자씨(마13:31-32; 막4:30-32)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비 형태의 하늘의 왕국이 크게 불어나는 것

주님의 교회, 시작은 미미함, 끝에는 엄청나게 큰 기관이 된다.

Christianity, Christendom

가장 작다는 의미: 다른 것들에 비해 작다는 뜻

공중의 새들이 거한다(32). (마13:4, 19), 마귀들의 거처, 로마 카톨릭 교회 등

4. 누룩(마13:33; 눅13:20-21)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비 형태의 왕국이 크게 불어나는 것

후천년주의자들, 교회의 부흥, 누룩은 복음이다.

성경의 누룩은 언제나 악을 뜻한다. 성경의 누룩: 부패시키는 물질(총 23회, 출12:15부터)

거짓 교리: 마16:6-12; 고전5:6-8; 갈5:9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헤롯 당원들의 행실(마16:6-12; 막8:14-21 등)

여자: 성경의 교회는 여자가 아니라 항상 신부요, 처녀이다(고후11:1-3).

여기서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 언급, 비유가 아니면, 비유가 없이는(13:34)

5. 숨겨진 보물(마13:34)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비 형태

이 보물은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 돈으로 구원을 사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파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 내 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출19:5),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들여 이 보물을 구함

6. 진주(마13:45-46)

보통 해석: 모든 것을 버리고 신자가 된다. 역시 행위 구원 문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쳐서 진주를 산다. 이 경우 진주는 아마도 교회일 것이다.

7. 그물(마13:47-50)

이 모든 비유들의 요약,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그물의 특징, 800미터, 전 세계를 향한 심판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 구원받은 자들+말로만 믿는 자들(좋은 고기, 나쁜 고기)

마13장의 기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특별히 심판은 휴거 이후 이 땅에서의 심판(마24:29-31)

마25:31-46(양과 염소, 요엘서 3장, 겔20:33-38

13장 요약

구약에 드러나지 않은 신비들

1. 왕국의 시작: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 왕국에 대한 반대와 핍박 세력 증가: 알곡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3. 왕국의 결과: 구원받은 유대인(보물), 교회(진주), 구원받은 이방인(좋은 고기)

시대의 구성: 교회는 7년 환난기 전 휴거, 7년 환난기, 끝에 유대인들 부활, 구약 성도들 부활

이 말씀: 그리스도의 공생애 3년 반, 아마도 3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의 확고한 거부 확인

그리고 16장에 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심

결론

1.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후천년주의 불가능, 세상은 나빠진다.

2. 또한 실제 천년왕국은 없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이다. 불가능,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3. 전천년주의만이 성경의 답이다.

4. 유대인들의 거부, 이후 재림까지의 기간, 신비 속의 하늘의 왕국

5. 신비라 함은 구약에는 안 나타났는데 신약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구약에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왕국이 드러나지 않음

6. 이렇게 마13을 이해해야 성경의 예언 해석 가능

성경의 주요 예언 2: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언 및 성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 동시에 구약과 복음서에 자세히 예언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다 이 둘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 동시에 시간과 영원에서 하나님의 의도들의 핵심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인물,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많은 예언, 이를 통해 시간과 영원의 파노라가 펼쳐짐
왜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 대신 속죄 죽음(vicarious death), 속죄(atonement), 분리가 되어 있다.

첫 아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 심판, 죽어야 한다. 이를 면하려면 대신 속죄(벧전1:18-21)

마지막 아담, 화해 제물(요일2:2), 이것으로 인해 새 상속 언약(마26:28)

예수님의 부활: 모든 사람은 육적으로 죽는다.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전 15:50-54).

이 모든 것을 한 몸 안에서 이루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심히 중요하다.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을 알고도 이 둘을 모르면 구원 불가능(롬10:9-10)

구약 성경에 드러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분의 죽음의 부활: 구약 시대 성도들의 집중적인 질문(벧전1:8-12)

벧전1장 매우 중요함: 구약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 언급, 기록자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것들 이해 못함

즉 고난당하는 메시아 동시에 승리하는 메시아

신약성경의 해답: 고난과 죽음 초림, 승리와 통치 재림

2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한 메시아 두 번 오심

물론 구약은 이 둘을 다 보여 준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출생, 삶, 죽음, 부활 등에 대해 가장 많이 예언된 분

창세기부터 말라기는 이런 것들의 집합체(요5:39; 눅24:44)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말함, 예표를 통해 비유로 말하기도 한다.

구약 성경: 예수님의 죽음

1. 창세기: 창3:15, 예수님의 죽음, 발꿈치, 가죽 옷(창3:21)

아벨의 제사(창4:1-8),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의 죽음, 대신 속죄 개념

이런 희생 시스템은 구약의 희생 시스템 근간

어린양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예표

2. 출애굽기 12장 3절, 6-7 (요1:29)

3. 시편, 예수님의 죽음, 시22

1절(막15:34), 그 이후 여러 절, 십자가 처형

뼈가 부러지지 않음(시34:20; 요19:33)

친구에 의해 배신당함(시41:9; 마26:14-16)

4. 이사야서, 예수님의 죽음, 53장

구약 성경: 예수님의 부활

1.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창22; 히11:17-19)

2. 시22:22, 27-31 부활 후 선포

3. 이사야서 53:10-12

4. 시16:8-10(행2:24-28), 행13:33-37

복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1. 마12:38-40(눅11:29-30), 요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2. 그 뒤(마16:21; 17:9, 23; 20:19; 26:32; 막8:31; 9:9, 31; 10:33-34; 눅9:22; 18:32-33), 요2:18-22과 막14:58
3.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기억함(마27:63)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경의 중심 주제: 대신 속죄, 이후 바울 서신 등은 여기에 근거해서 복음 설명

사도행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1. 행1:3-4
2. 행2:24-32; 3:15; 4:10; 5:30-31; 10:39-41; 13:29-37; 17:3, 31-32; 26:22-23

서신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1. 롬1:4, 4:23-25, 5:10
부활의 필요성(6:9-10; 8:11, 34; 10:9)
복음의 정수(10:9-10)
복음의 정의(고전15:3-4)
부활(15:20-27)
2. 엡1:1, 19-21 부활
3. 빌3:10-11
4. 살전4:14
5. 히13:20-21
6. 벧전1:3-4, 3:18

계시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1. 계1:4-5
2. 1:18
3. 5:6

결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구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고전15:3-4

그러므로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이 주제

구약과 복음서는 예언, 그 이후 이에 기초한 복음

우리의 구원의 근거(롬10:9-10)

성경의 주요 예언 2: 예수님의 새 프로그램인 교회 예언 및 성취

예수님의 공생애 끝 부분, 메시아 왕국 실현 불가능 인식, 제자들은 종교인들의 반발과 그분을 죽이려는 움직임을 감지함

결국 마23장 왕국 확립은 재림 때로 연기됨(37-39)

예수님의 내 교회

마16장, 가이사랴 빌립보 마16:13-18, 처음으로 교회 언급

교회(church): 단수 총 77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행2:47~계3:14: 신약 교회, 교회들(churches): 복수 총 37회, 행9:31~계22:16, 총 114회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신약에 117회):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야구팀도 에클레시아

구약시대에도 있었으나 그것은 신약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광야 교회(행7:38)

이집트 속박에서 가나안의 자유로, 그런 의미로 교회, 그러나 신약 교회가 아니다.

소유자: 예수님(마16:18), 하나님(행20:28; 딤후3:15)

교회의 기능(엡4:11-12)

지역 교회: 일차적으로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위한 모임

그러므로 복음 선포 중심(구원)이 아니라 성화/선교/교육을 위한 훈련 모임

오늘은 교회가 생성되는 과정과 새로운 것들을 소개하려 한다.

교회 출현 예고 후 예수님은 몇 차례나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예고(마16:21-23; 17:22-23; 20:17-19)

제자들은 이런 예고 무시, 심지어 그분이 죽을 때에도, 부활 후에도 인식하지 못함.

행1:3-6 설명

예수님은 열두 제자가 왕좌에 앉아 열두 지파 재판할 것 확증(마19:28-30), 막10:28-31, 18:28-30

제자들은 그 시대에서 보상 확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 왕국에서라고 하심

분명하게 다시 나게하는 때에 보상(28절)

마지막 유월절에서 새 프로그램 계시

예수님의 죽음 바로 전날, 다락방에서의 설교(요13-17)

여기서 그분께서는 메시아 왕국 실현 전에 새 프로그램 도입 시사

새 프로그램인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은 먼저 종들로 일한다. 그러면서 발을 닦아 주심(요13)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 주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직접 하심

제자들의 관심: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막9:33-34, 눅9:46)

요13:6-11, 설명

이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삶은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임을 보여 주심

즉 이제 교회라는 새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왕국과는 다른 것이다.

그 결과 가롯 유다는 희망을 접고 배반을 모색함: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대 증가, 왕국 확립 기미 없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 공표

이제 나는 떠난다고 하심(요13:33), 새 명령을 주심(34-35)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36-38)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알려주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보여 주심

제자들은 당황함: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름, 그런데 떠나가신다고 함

그래서 주님은 요14:1, 구약 시대 백성들의 불신, 그럼에도 구출하심, 나를 믿어라.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제 더 필요하다.

어쩌면 처음으로 휴거 메시지(요14:2-4), 결혼 풍습, 유대인 신랑은 정혼한 뒤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처소 예비 후 다시 온다. 받아들인다. 휴거
그리고는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하심(4)
도마의 발언(5), 예수님의 말씀(6), 천국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8-9). 주님의 대답(10)

성령님의 내주

새로운 시대 도래(요14:15-17), 성령님의 내주, 신약과 구약의 차이
교회라는 새 프로그램 안에서만 존재함

성령님의 침례

마3:11; 막1:8, 행1:5; 롬6:1-4 등
특히 행1:4-5, 고전12:13(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말 그대로 성령님 안에 잠기는 것이다.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곧 구원이다. 일생에 한 번 발생
더욱이 성령 침례는 방언 등과 상관이 없다.
그 뒤 성경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함을 가르친다(엡5:18).

새 프로그램의 의미: 몸과 머리

엡3:2-6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성령 침례를 통해서
몸과 머리(엡2:14-16, 19-22)
교회는 빌딩이다(엡2:19-21)
교회는 신부이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호2:1-23)
교회시대: 예수님과 성도들은 신랑과 신부(고후11:2; 계19:6-8)

영적인 선물

롬12:3-8, 고전12:28-31
지나가는 선물: 사도, 대언자, 기적, 병 고침, 방언 등
그 외에는 지금까지 늘 존재함

모두가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히13:15-16)
구약시대 대제사장, 수제사장, 제사장들

직무 수행자

감독과 집사(딤후3)

두 가지 규례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인 교회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것들이다.
심지어 휴거도 교회에만 존재한다.
지금은 교회 시대, 막이 내리고 있다.
거룩함으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자.

성경의 주요 예언 22: 예수님 재림의 표적들에 대한 예언과 성취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 산, 올리브산 설교 사복음서의 세 복음서에 기록됨(마24-25; 막13:1-27, 눅21:5-36)

유월절 이틀 전, 십자가 처형 사흘 전, 네 명의 제자들 질문(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유대인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

마태복음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물 흐르듯이

이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죽음 예고(마16:21; 17:22-23; 20:18-19)

마21:33-46,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 그리고 아들의 살해, 물론 아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반 정도 주님 수행, 왕국 도래, 통치 기대(마19:28-29)

그런데 예수님은 마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8번 화를 선포함(13, 14, 15, 16, 23, 25, 27), 7번이나 위선자라 부름(13, 14, 15, 23, 25, 27, 29)

두 배나 지옥 자식(23:15)

눈먼 안내자(16, 24), 어리석고 눈먼 자(17)

23, 25, 27, 28절로 책망

30-31절

뱀, 독사의 자식들(33)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저주(37-39), 재림 때에나 다시 본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거쳐 올리브 산으로 가는 도중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여 줌(24:1)

예수님의 대답(2)

제자들 생각: 돌이 하나도 안 남으면 이제 왕국은 안 오는구나. 약 46년 걸림(요2:20),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AD 63년에 완공, 70년에 파괴됨, 흰 대리석과 백향목, 황금으로 지붕, 9개 문을 입힘, 그냥 황금의 집 자체, 해가 뜨면 볼 수 없음, 해롯의 큰 프로젝트, 돌 하나의 무게 몇 십 톤, 채석장, 잘라서 수레로 운반함

딱 맞게 잘라서 가져와야 함. 시멘트, 회반죽 사용 불가

주변보다 45미터 정도 높이 솟아 있는 성전은 멀리서도 보임

네 명의 제자들이 와서(막13:3) 구체적으로 3개의 질문을 함(마24:3)

1. 성전 파괴 시점

2. 왕이 오실 때 즉 왕국이 세워질 때의 표적들

3. 세상 끝의 징조들

1번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에 기록됨(21:5-36)

2, 3번 답: 마태와 마가, 마태에는 여러 가지 상세 사항

마태복음 24장

3년 반 공생애, 종교인들의 위선과 고집, 결국 하늘의 왕국 연기(마23:36-39), 그리고 24장이 나온다.

24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해석에 따라 환난 전 휴거, 환난 통과 휴거 등이 결정된다. 마24:29를 피상적으로 보면 환난 통과 후 재림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만, 이들은 아직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되었다(고전 12:13).

천주교의 무천년주의 영향을 받은 많은 이들이 이 구절들을 현 시대나 AD 70년 이전의 상황으로 이해한다. 일단 결론: 마24장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마24장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23장 끝,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될 유대인들의 상황

하늘의 왕국 제시, 거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끝 휴거(공중 강림 살전4, 고전15), 7년 환난기(대환난), 1000년 왕국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7년 환난기의 대환난 부분, 교회는 없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구조, 4-19장까지 교회가 없다(7년 환난기). 교회는 환난기 시작 전에 휴거

예루살렘 멸망

눅21:20-21, AD70년, 로마 군대, 도시를 벗어난 자들 생명 구함, 안에 있는 자들 죽음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예루살렘 진격, 성전은 남겨두라. 그러나 군사들이 불을 지르므로 약탈이 시작됨, 하는 수없이 도시 자체와 성전을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명령, 군사들이 성전의 금을 차지하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뒤집어서 주변 계곡에 내다버림: 21:6 성취
요세푸스의 증언: 군사들이 지나간 뒤 성전 산은 광야 같았다.

눅19:41-44, 40년 유예, 로마의 침입, 143일 동안 포위, 110만 명 살해, 10만 명 포로
도시와 성전 자체를 부숴, 예언 성취(마24:2)

예수님 재림의 후반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슥14:1-2).

무서운 일 발생(눅21:23-24)

이방인들의 때까지(24), 주님의 재림까지 예루살렘에 짓밟힘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형상, 네 번째 왕국

이방인들의 때: BC 606년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 이후 마지막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2년에 한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단2:31-45). 이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며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적 가치가 위에서부터 점점 하락하는 것은 세상 왕국의 쇠퇴를 보여 준다.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금속은 연이어 일어난 네 개의 세상 왕국을 의미한다(단2:37-40). 느부갓네살 왕의 때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네 왕국 곧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계의 정부로서 계승되었는데 여기서는 이 왕국들의 개수와 그 이름이 순서대로 밝혀져 있다(단2:38-40; 8:20-21; 9:26).

한편 이 형상은 산에서 잘라 낸 돌에 발을 맞고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데 이 돌은 점진적으로 땅에 가득 차서 단번에 형상을 부수고 만다. 또한 이 형상의 멸망의 때는 발가락이 형성된 이후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상의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던 주후 364년경에야 나타났고 열 개의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돌이 형상 위에 떨어지는 때는 '이 왕들의 날들' 곧 장차 있을 열 개의 발가락이 대표하는 왕들의 때로서 다니엘의 해석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단2:44; 7:23-24).

여기에 나오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네 가지 금속으로 표현된 네 왕국은 문자 그대로 실질적인 왕국이다. 그러므로 말세에 있을 '돌 왕국' 역시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돌 왕국'이 그 세상 왕국들을 파괴하고 그것들을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 왕국'은 그리스도가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며 형상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끝나게 된다.

중간에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자유, 이스라엘은 현재도 미국, 영국 등의 도움 없이는 존재 불가능
후반부 3년 반 대환난기,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협박, 통치, 계11장

누가복음의 재림

성전 파괴 예언 이후 주님은 재림 사건으로 나아가신다.

눅21:25-28, 누가의 묘사를 길게 상세하게 확장한 것이 마24이다.

마24장 여러 해석

눅21장, 마24, 막13과 관련해서 여러 해석

무천년주의자들: AD 70년에 모두 성취됨,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루어지지 않음

AD 70년 성전 파괴,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지 않음

더욱이 창세 이후의 대환난 없음

더욱이 AD 70년 이후에 주님의 재림 없음(마24:29)

즉 AD70년의 성전 파괴와 재림 전의 성전 파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지금은 천년왕국 시대가 되어야 한다. 지난 2000년 No!

후천년주의자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한다. 재림 때 최고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보이지 않고 반대를 보임

그러므로 오직 전천년 믿음만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결할 수 있다.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 마24:4-14를 오직 대환난기(미래로)만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4-14는 지금도 일부는 교회 시대 말기인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다만 15절 이후부터는 미래에 성취된다.

세상 끝의 일반적인 표적들(4-14절)

환난기 시작되기 전, 교회 시대 끝 부분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 9절 등의 너희는 유대인

1. 거짓 그리스도들(24:4-5), 특히 이 시대에 많다.
 2.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들(6-7), 20세기 1, 2차 세계대전, 그러나 아직도 곡과 마곡의 전쟁(겔 38-39),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다(계16:13-16).
 3. 계6장의 기근(5절의 셋째 봉인), 4. 역병, 5. 지진(슥14:4-5; 계16:19)
 6. 박해와 순교(마24:9-10)
 7. 거짓 대언자들 등장: 성경 무오성, 예수님의 신성, 몸의 죽음 및 부활, 처녀 탄생, 재림 부정
 8. 사악함의 증가(12)
 9. 왕국의 복음(14): 왕국이 세워진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끝까지 견디는 자(마24:13),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다. 여기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적 구원 아니다.
- 육체적 구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구원,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10. 왕국 복음의 선포, 끝이 온다(14).
 11. 기억해야 한다. 이때가 오기 7년 전 즈음에 이미 교회는 휴거되어 하늘에 있다.

세상 끝의 구체적인 표적들(4-14절)

1. 다니엘의 예언(마24:15), 단9:26-27, 11:31; 12:11
- 현재 성전이 없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살후2:3-4).
2. 유대에 있는 자들 산들로 도망(16, 계12:7-17)
 3. 유대인 안식일(24:15-20)
 4. 큰 환난(24:21-22, 계7:14; 단12:1)
 5. 거짓 소문(마24:23-25), 6. 또 다른 소문(24:26-27)
 7. 천체들의 변화(마24:29), 8. 사람의 아들의 나타남(24:30)
 9.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24:31), 재림의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아마 선택받은 모든 자들을 모으는 일(막13:27)
 10. 구약 성도들, 환난기 성도들 부활

결론

이스라엘 회복

성전 건축,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이 확실하다.

1. 주의하라(34).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34).
 2.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올무같이 임한다.
 3. 그러나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살전5:4).
 4. 깨어 있으라(36).
 5. 이런 것들 닦이기 전에 휴거의 소망이 있다. 정상적인 삶
-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영원한 보증과 위로 성령님
바른 개인, 바른 가정, 바른 국가, 바른 교회